



표지사진 : 문화유적 답사 중

등록번호 충남 라01136(1998.6.1)
E-mail: 8529005@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culturegj.or.kr>
통권 제271호 2008년 9-10호

발행인_정재욱

편집위원_이극래, 나태주, 구중희,
신용희, 김춘원

발행처_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041 · 852 · 9005, 852 · 7600

인쇄처_공주신문사
041 · 853 · 8111

CONTENTS

2	公州의 어제와 오늘 공산성 쌓수정
3	웅진칼럼 아시아 구석기학회 창립과 우리의 자세
6	아름다운 공주가꾸기 아름다운 간판④ / 신용희
8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⑬ 귀향길에 공주에 머물며 / 백원철
13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⑬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 / 장길수
17	따뜻한 공주사람 이야기⑥ 공주가 세계의 중심이 된 날 / 나태주
22	[특집] 문화유적 답사 답사의 가치는 무엇인가? / 양승일
27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⑩ 공주 사랑의 호스피스
29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탄천면 남산리(3)
36	공주의 인물 노씨 삼의사
32	공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소개 댄스스포츠
40	시정소식
44	내고장 소식
50	미담
52	예술의 향기
56	문화원 소식

공산성 쌍수정



—1930년대 쌍수정



—가을 단풍이 있는 쌍수정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49호로 지정되었다.

공산성 진남루(鎭南樓:충남문화재자료 48) 서쪽에 위치한 정자로

1624년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하여 머물렀던 곳이다.

쌍수(雙樹)에 기대어 왕도를 걱정하던 인조가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기대었던 쌍수에

통훈대부(通訓大夫)를 명하고 이곳을 쌍수산성이라고 하였다.

이때의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734년(영조 10) 이 정자를 창건하였는데,

창건 당시의 이름은 삼가정(三架亭)이었다.

그후 여러 차례 중건하였으며,

1903년(광무 7)에 수축한 것이 현재의 쌍수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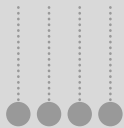
지금의 건물은 1970년 전체적으로 해체 복원한 것이다.

정자 앞에는 느티나무 1그루와 말채나무 1그루가 서 있다.

인조가 이곳에 머물렀을 당시의 사적을 기록한

비(쌍수정 사적비:충남유형문화재 35)도 남아 있다.

지금의 쌍수정



이 웅 조 _

- _ 공주사범학교 졸업
- _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사·석사·박사
- _ 중국과학원 영예 이학박사
- _ 충북대학교 교수 겸 박물관장(전)
- _ 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현)
- _ 한국전통문화학교 초빙교수(현)
- _ 아시아구석기학회 부회장(현)
- _ 공주석장리 발굴 1회~10회 참가(현)

아시아 구석기학회의 창립과 우리의 자세

인류 역사의 99.9%를 차지하는 구석기시대에 관한 학술 조사로는 러시아에서는 1871년 최초로 발굴된 이후 130년 만에 아시아인들이 모여 구석기학회를 만들기 위한 창립총회가 러시아 알타이지역의 데니소바 캠프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렸다. 또한 이 회의는 러시아 구석기연구의 아버지 A.P.오클라드니코프 탄생 100 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국제회의이기도 하였다.

이 회의에는 한국·러시아·중국·일본 아시아의 4개 준비국들과 독일·우크라이나·벨기에·스페인·유고공화국까지 9개 국가의 참가자들이 모여 5일 동안 주제발표와 토론, 그리고 답사를 하였다.

주제발표에는 중국·일본·한국·러시아를 각기 대표하는 학자들의 연구발표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나라별로 이어지는 국가별 발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청원 만수리 구석기 유적의 조사연구'로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좌장을 맡았다. 중국·러시아·일본의 국가별 발표에 이어 한국측 발표로는 한창균 교수(한남대, 한국구석기학회)와 홍미영 박사의 '한국 후기 구석기문화의 기원', 배기동 교수(한양대, 한국박물관협회)의 '늦은 연대의 퇴적층에서 출토된 오랜 구석기 유물', 이형우 교수(전북대)의 '주먹도끼의 대칭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현중 교수(목포대)의 '화순 사창 유적의 구석기문화'라는 제목으로 학회의 참가자들에게 한국 구석기연구의 최근 연구와 경향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일본 동지사大 마쓰후지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들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해석한 오송과학단지 내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유적의 55만년 전이라는 연대가 최근의 절대연대 측정결과와는 맞지 않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 유적에서 출토된 여러 층위의 석기들이 자갈돌을 돌감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석기제작과정 상에는 층위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하층에서는 외날로 만든 주먹찌르개만 출토되고 그 위층에서는 양날로 만든 주먹도끼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는 사실과, 일본으로부터 날아온 AT화산재(2.5만년 전)와 K-Tz 화산재(9.5만년 전)가 검출되었음도 밝혀 국제간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학회는 각국 학자들의 연구 방법과 그 주도층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발표가 특별히 인상적이었다. 중국은 중국측 단장인 가오싱(高 星)교수(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고인류연구소 부소장)의 ‘중국의 최근 고인류연구와 구석기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에서 최근에 발굴된 많은 유적들에서 200만년을 전후한 연대측정 결과를 얻었으며 또한 사람뼈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짐승뼈 및 석기들이 출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고척추동물·고인류연구소 소속의 신예 학자들과 박사과정생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적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발표하였고 이들의 학문적 관심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일본 학자들은 중진과 소장학자들이 일본 구석기연구의 특징인 세밀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주제를, 주최 측 러시아는 중진 학자들이 좀 더 포괄적인 연구 주제를 발표하여 좋은 대비를 보여주었다.

이들 발표에 이어 ‘돌날문화의 기원과 전파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현생인류의 진화와 확산’이라는 큰 주제에 대하여 모든 학자들이 참가하는 종합토론회로써 주제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이렇듯 조직위원장 데레비안코 박사의 다른 국제회의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진행에 신선하고 훌륭한 발상으로 큰 감명을 받았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현장답사를 통해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분원(RAS SB)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으로 발굴해 온 알타이지역의 데니소바 동굴유적과 주변 한데유적(Open-air site)의 답사를 할 수 있었다. 이 회의가 열린 지명의 이름을 준 데니소바 동굴과 오크라드니코프 동굴유적, 그리고 주변의 한데유적을 답사하는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데니소바 동굴은 석기·동물·식물·연대측정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기부터 후기 구석기까지의 문화상을 잘 살펴볼 수 있었다. 오크라드니코프 동굴유적의 경우, 출토된 인류 화석의 DNA 분석결과 네안데르탈인이었음을 밝혀져 이전까지의 네안데르탈인 분포도가 동쪽으로 더욱 확대되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가장 이른 연대인 80만년 전의 카마라 유적의 층위와 석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 학자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와 더불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또 하나의 큰 의의는 아시아 구석기학회(Asian Paleolithic Association, APA) 창립총회를 겸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국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선사시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조직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필자는 아시아 구석기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학회의 필요성을 그 동안 필자가 주최한 국제회의 「수양개와 그 이웃들」(1996부터 시작하여 작년

까지 12회가 열렸으며, 올 해 13회는 일본 구주에서 개최된 다)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제기하여 왔다. 특히 2001년도 한국구석기학회장을 맡으면서 총무로 있는 이현종 교수와 함께 중국·일본·러시아의 학자들과 아시아구석기학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전제로 각 국의 구석기학회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이들 나라의 구석기학회가 2003~04년도에 걸쳐 설립되었으나 이러저러한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것을 제12회 수양개 국제회의 장소인 러시아 크라스노야스크 국제회의(2007. 8. 7~15)에서 이번에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데레비얀코 박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이번에 각국 고고학자들의 뜻이 한데 모아져 아시아구석기학회가 출범한 것은 필자에게 커다란 보람을 안겨주었다.

이번 창립 총회에서 러시아과학원 원사이며 RAS SB 원장인 데레비얀코 박사가 초대 회장으로, 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부회장(러시아 측은 N. Drozdov 총장, 일본측은 Inada 교수, 중국측은 高 星 교수)으로 선출되었고, 2010년에는 한국에서 아시아구석기학회가 개최되도록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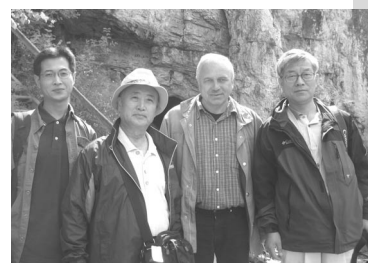
이처럼 구석기시대가 다시 조명을 받는 계기가 된 이번 학회는 구석기 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얼마나 아시아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열기 속에 한국 학회가 아시아 구석기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계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느꼈다. 또한 오클라드니코프 탄생 100 주년을 기념하는 TV 다큐멘터리 제작에 외국 학자의 대표로 필자가 인터뷰하게 된 점도 국제 고고학계에서 한국 구석기학의 위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앞으로 2010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아시아구석기학회에는 구석기학자들은 물론, 이들이 관계하는 기관과 조직, 그리고 우리나라 구석기를 대표하는 공주 석장리를 비롯한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 개 등의 유적이 위치한 자치단체(공주시·연천군·단양군)와 경기도·충청남·북도 등의 여러기관, 이 국제회의의 의미를 높이 사야 될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대책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클라드니코프 교수가 발굴시 사용한 천막 앞에서 (가오성 교수와)



데니소바 동굴을 주도적으로 발굴한 코프 박사와 함께



아시아구석기학회 총회의 창립기념촬영



오클라드니코프 탄생 백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에 인터뷰중인 필자

작은 간판으로 공주를 아름답게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점점 윤택해 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속에서 접하는 '시각환경'은 '요란하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의 출발은 바람직하지 못한 '불법간판'에서 비롯된다. 간판의 난립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만 아니라 건물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원은 금강뉴스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공주 가꾸기' 캠페인을 개최, 연속적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간판'을 기획·연재하면서 연내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도 할 예정이다. - 편집자



고마나루돌쌈밥

역사와 문화의 공주 관광 일번지는 공산성이다. 그리고 금강변 고마나루 솔밭은 공주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의 뿌리를 간직한 곳이다. 공산성 금서루 앞에 '고마나루돌쌈밥' 식당은 공주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인 고마나루를 공주관광 일번지인 공산성 앞에 갖다놓았다. 공주를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이야기가 고마나루 전설이다.

공주에 사는 한 젊은이(나무꾼)가 강을 건너 연미산으로 나무를 하러갔다가 암굴에 잡혀 동굴에서 아이 셋을 낳고 살았다. 어느 날 곰이 방심한 틈을 노려 나무꾼은 굴을 도망쳐 나와 강을 헤엄쳐 건너갔다. 이를 눈치챈 곰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라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고향의 부모형제가 그리운 나무꾼은 못 본 체하고 강을 건넜다. 이에 곰은 아이 셋과 함께 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 후 이곳을 지나가는 나룻배가 자주 전복하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고마나루 솔밭에 사당을 세우고 제를 지냈다. 이후 배가 전복되는 일이 없어졌다는 전설이다.



새벽에 고마나루 솔밭에 가본 사람은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안개에 휩싸인 솔밭 사이로 곰의 애달픈 울음(?)소리를...

공주의 이 전설을 식당 상호로 지은 안영순(75) 사장의 문화관광 공주사랑을 엿볼 수 있는 선택이다. 이 아름다운 간판과 어울리게 이 집의 식단 역시 다양한 야채를 주재료로 한 쌈밥으로 유명하다. KBS, MBC, SBS 등 TV방송과 신문, 잡지 등에서도 소개돼 이미 전국에 명성이 자자하다. 공주에 고마나루가 있다면 부여에는 구드래가 있다. 이 집은 부여 구드래돌쌈밥 공주점으로 작은 간판 속에 두 지역의 문화의 특성을 잘 살려내면서 꼭 다시 한 번 찾게 만드는 곳이다.

신용희 | 명예기자



〈간판상식〉

○좋은 간판이란?

좋은 간판이란 무엇일까? 좋은 간판이 왜 필요할까? 한번 상상해 보자.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 거리와 다닥다닥 간판이 붙어있는 거리를... 좋은 간판이 많은 거리는 그 곳을 걷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정보 전달이 정확해야 한다

간판의 본래 기능은 장소를 확인시켜주는 '전달성'에 있다. 그런데 최근의 많은 간판들이 전달성보다는 '과시성'과 '장식성'에 더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야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시야범위란, 양손을 몸과 평행하게 펼쳐서 앞으로 모으다가 양손이 눈에 감지되면 그게 최대 시야범위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간판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4차선 도로는 약 20m이다. 우리글의 경우 20m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글자의 크기는 세로 15cm 정도다. 정보전달성이 좋은 간판의 조건은 글자체가 얼마나 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독창적인 디자인을 했는가에 있다.

- ① 작지만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 ② 한옥주택이 갖는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간판이다.



귀향길에 공주에 머물며

백 원 철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조선 후기 관인과 문인 학자를 많이 배출한 풍산홍씨(豊山洪氏) 가문에 해옹(海翁) 홍한주(洪翰周, 1798~1868)라는 문사(文士)가 있다. 그는 순조·헌종·철종 연간에 명성이 있던 홍석주(洪奭周)·현주(顯周)·길주(吉周) 등과는 재종 형제간이 되며, 이들과 함께 문장에 능하다는 평을 들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안동김씨(安東金氏)와 세도(勢道) 다툼이 있었던 때였으므로, 해옹 역시 벼슬길은 그리 순탄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남긴 저술인 문집 해옹고(海翁藁)와 지수염필(智水拈筆) 등은 주목을 받을 만한 시문집에 속한다.

해옹은 문사답게 연소(年少)한 때부터 유람을 즐기면서, 여행지에서의 감흥(感興)을 시로 읊은 것이 많았는데, 공주와의 인연도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곧 해옹은 10대 후반에 호서지역을 유람하면서 읊은 시들을 모아 호해집(湖海集)이라고 편명을 붙였는데 상·하 41수(首)에 달한다. 여기에 쌍수정을 읊은 시가 보인다.

말을 멈추고 찾아와 옛 비문을 읽노라니
현옹(상촌)의 문자를 완연히 알겠구나.
이제도 쌍수정 옛터가 있으니
당시에 임금이 머문 곳이라 전하네.

歇馬來尋讀舊碑
玄翁文字宛然知
至今雙樹遺墟在
傳道堂年駐蹕時

〈湖海集鈔上 雙樹亭帖〉

위 시는 순조 15년(1815) 해옹이 충청지역을 처음 유람하면서 지은 것이다. 천안을 출발하여 공주와 정산을 거쳐 부여로 가는 길에 잠시 공산성에 올라 읊은 시로서 지은이 18세 때의 작품이다. 이 해에 재종 형인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 1774~1842)가 마침 충청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었으므로, 해옹이 어린 나이에 이 지역을 유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그의 문집에서 접할 수 있는 공주관련 시문은 지은이 만년에 읊은 것들이다.

세상을 살되 관리는 되지 말아야지	處世不須做宰官
이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네.	此身安處即心安
술잔을 잡고 어느 날에 일상처럼 추억할까	對樽何日尋常憶
촛불 밝히고 오늘밤에 자세히들 보게나.	秉燭今宵仔細看
건강할 땐 비록 험준함도 문제될 바 없으나	平步縱無夷險異
쇠한 때엔 도리어 이별이 어렵고 안타깝다네.	衰懷還惜別離難
동에서 흘러온 금강물은 서쪽으로 돌아 흐르지만	東流錦水應西返
임금 은혜 끝까지 받기를 감히 바라리오.	敢望恩波趁歲闌

〈芸堂續集鈔〉

위 시는 철종 6년(1855) 지은이 58세 때의 것이다. 시의 제목(將謫公山 澹湖雲臯 冒雨來宿 酌酒話別)과 내용으로 보아 중앙관직에서 축출되어 공주지역으로 좌천된 상황에서 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로차 찾아온 지우(知友)들과 밤늦도록 술잔을 나누며 환로(宦路)의 험난함, 기억할 수 없는 재회, 이별의 안타까움 등에 대하여 토로하고 있다.

9월 9일 날씨 따뜻하여 낙엽이 없는데	九日暄妍葉不飛
옛집 떠난 생각에 꿈처럼 아득하네.	故園離思夢依微
국화 피는 남쪽지역 가을은 어찌하여 늦는가	黃花南國秋何晚
흰 기러기 서풍 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네.	白雁西風客未歸
이미 몸을 맡겨 뛰어난 경치 찾아왔으니	已放形骸來絕境
오로지 좋은 계절 맑은 날씨 즐기려네.	聊將節物弄晴暉
오늘밤 잠자리엔 산에 솟은 달 비치리니	今宵擬宿山中月
잠자리 서늘하여 신선의 세계일세.	一枕蕭蕭薜荔衣

〈詩稿 권6, 芸堂續集鈔〉

위 시는 지은이 해옹이 조정의 중앙관직에서 물러나 이곳 공주지역의 관원에 부임(?)한 뒤, 주위의 수령 및 지기(知己)들과 어울려 계룡산을 유람하며 읊은 것이다. 본 시의 제목은 해옹이 공주 통판 정영조(鄭永朝)·연기현감 이승겸(李承謙), 이 지역의 유사(儒士)로 추정되는 송단화(宋端和) 등과 같은 해 중양절(9월 9일)에 계룡산을 유람하면서 읊은 시임을 밝혀주고 있다.(與通判鄭善卿永朝 燕歧知縣李景益承謙 宋翬敬甫端和 同遊鷄龍山 是乙卯重陽也)

그 뒤에 해옹은 무오년(1858, 철종9)에는 상주목사로 재임하였으나, 포함(逋欠) 문제가 발생하여 임술년(1682, 철종13)에는 보성 군수로 체직되었다가, 같은 해 8월에는 나주목의 지도(智島)로 유배되었다. 다음 해인 계해년(1863, 철종14) 7월에 유배에서 풀려나 전리방축(田里放逐)되었는데, 어인 일인지 귀향길에 공주에서 여러 달 머물며 읊은 시가 7수에 달한다. 이를 묶어 『금상집초(錦上集鈔)』라고 편명을 붙였는바, 따라서 문집에 채 실리지 못한 작품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늙은이 일 없어 이리저리 즐겁게 노니	老人無事喜逍遙
유람의 흥취 가득하여 지워지지 않네.	遊興翩翩未便消
술병 갖춘 행장은 어찌해 단촐하더냐	蠻槩行裝何冷澹
강가 누정의 정경조차 너무 쓸쓸하구나.	江樓物色太蕭條
생황 가락 떠들썩하나 옛 자취 공허하고	笙調沸地空陳跡
시 짓고 술 마시며 난간에 기대니 곧 아침이로다.	詩酒憑欄又卽朝
다만 볼만한 것은 성곽 밖의 연기 오름이요	只愛風烟山郭外
가러기 줄지어 구름 속으로 날아들이라네.	雁行飛盡入雲霄

〈詩稿 권6, 錦上集鈔〉

위 시는 계해년(1863, 철종14)에 지은 것으로서 지은이 66세 때의 작품이다. 10월 16일 학하리에 거주하는 벗 박현규(朴顯圭)와 약속하여 쌍수산성의 공북루에 올라 함께 읊은 것이다. 앞서 말한 바, 이해 7월에 지도에서 해배되어 전리에 방축되었음을 감안한다면, 해옹이 귀향길에



공주에 머물며 지우들을 만나 지은 시로 추정된다. 시의 정조(情調)가 대체로 침울하며 쓸쓸한 분위기를 띠게 된 것은 곧 이 당시 해옹이 처한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해옹은 며칠 후에 다시 시를 지어 벗에게 보여주었으니 다음과 같다.

10리쯤 물길 따라 나루터에 다다르니	沿洄十里到津頭
지키는 성곽 높고 수목도 우거졌네.	保障城高樹木幽
산빛은 짙고 옅은 그림폭 간직한 듯한데	山色半藏濃淡畫
강가 노랫소리 이어져 수심을 일으키네.	江聲不盡古今愁
둘러친 성벽으로 연기 흘러드는 즈음에	周遭殘堞烟初合
높다란 텅 빈 누각에 달 솟아 올라오네.	迢遶虛欄月欲浮
허름한 침소에 그대와 함께 하루를 묵었는데	襤被共君成一宿
산뜻한 가을 꿈 외로운 배에 실었다네.	冷然秋夢在孤舟

위 시는, 앞서 학하리의 벗과 함께 공북루에 오르고 하룻밤 함께 유숙했던 추억을 회상하며 지은 시로서, 벗과의 재회에서 일어나는 애뜻한 감흥을 다시 읊어 벗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시 작품이다.

따뜻한 햇살이 만물에게 봄을 돌려주나니	溫?遂令萬物春
임금의 은혜 죄 있는 몸까지 미치는구나.	恩波又及不?身
몇 년이나 남산 곁에서 서로 왕래했던가	幾年徵逐南山側
이날은 금강 가에서 놀며 지내는 신세라네.	此日棲遲錦水濱
낡은 집에 부질없이 남긴 것은 서책이고	老屋空留書卷在
냉엄한 관직에서 얻어가진 것은 흰 머리뿐이네.	冷官?得?絲新
세상살이 잘되고 못됨은 본디 정해짐이 없으니	世間窮達元無定
꽃잎도 바람에 어지럽게 떨어져 뱃힘을 보게나.	看取風花落涵茵

서울에 있는 벗 운고(雲皐)가 시를 지어 보내자, 이를 차운하여 읊은 것이다(雲皐老友寄詩 二律次之). 벗이 보낸 두 수는 아마도 해옹의 처지를 위로하고자 지어 보낸 시였으리라 짐작되거나와, 이에 화답한 해옹의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인생을 달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노옹의 방문은 낮에도 항상 닫혔더니
 해 바뀌 봄이 되자 객이 되어 지나가네.
 장맛비에 흐린 날씨 산길은 어두운데
 빈 숲 아득한 곳 주막집 연기 푸르스름히 오르네.
 술은 쇠한 몸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으며
 차는 병든 위장을 깨끗하게 한다네.
 온 세상 천지 거리낌 없이 주유하는 그대여
 어느 때나 야인의 뜰에 찾아오려오.

老翁門戶晝常扃
 拜歲新春客過經
 積雨陰陰山路黑
 空林漠漠店烟青
 酒兵可使衰骸健
 茶乳能令病胃醒
 四海九州錦襖子
 何時來到野人庭

갑자년(1864, 고종1)에도 지은이 해옹은 공주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듯하다. 위 시는 갑자년 이른 봄(1월)에 조종훈(趙鍾勳)이 부여에서부터 비를 무릅쓰고 찾아오자 밤에 머물게 하고 함께 운을 내어 지은 것이다(甲子孟春 趙華攝鍾勳 自白江之旺津 冒雨遠訪 留夜呼韻共賦一首 甲子). 그러므로 해옹이 공주에 머물게 된 기간은 대략 계해년 가을부터 갑자년 봄까지 수개월에 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해옹이 실제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은 다시 1년이 지난 을축년(1865, 고종2) 1월이며, 다시 3년 뒤인 무진년(1868, 고종5) 2월, 71세로 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해옹은 전리방축의 조치가 풀리지 않은 기간 수개월을 공주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해옹과 공주와의 관계가 범상치 않은 것임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혹 전에 공주에서 관직을 수행한 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밖의 어떤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다고 하겠다.

해옹고원문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13)

장길수

__봉황중학교 교장
__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__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II. 땅이름 속에 살아있는 옛 터

6. 민간 신앙의 터전과 땅이름

민간 신앙은 우리 민족과 더불어 민중 속에서 나고 자란 민속 신앙이며, 토속신앙이다. 이는 마을의 화합과 번창을 기원하며 재앙을 막게 하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 믿음이다. 그래서 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 믿음을 찾는 이가 적지 않다.

대체로 전통마을에는 마을 뒷산 산정에 국수당, 산 중턱에 산신당, 동구 옆 또는 앞쪽에 서낭당이나 장승·숫대가 서 있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며 그 신앙의 터전은 많이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 서낭당, 장승배기 등의 땅이름이 전해 내려올 뿐이다.

1) 당집(=신당神堂)과 땅이름

민간신앙의 당집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셔놓고 제를 지내는 신당과 무당이

차려놓고 굿을 하는 곳당으로 대별한다. 신당은 지역에 따라 산신당(山神堂)·용신당(龍神堂)·서낭당·부군당(府君堂)·본향당(本鄉堂)·당산(堂山)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공주에는 서낭당, 산신당, 당산 등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땅이름으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성황당(城隍堂) 우금고개 마루에 있는 성황당.

▲서낭당고개 의당면 오룡동에서 북쪽 두만리로 넘어가는 고개.

▲성황당이(城隍堂-) 금학동 지막골 서



서낭당(우금치, 2006. 11. 25)

※ 서낭은 서낭신이 붙어 있다는 나무를 말한다. 이 나무 즉 신수(神樹) 주변에 쌓아 놓은 돌무더기나 신수에 당집이 복합된 형태의 서낭당에 깃들여져 있다고 믿어지는 신이다. 민간 신앙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지던 신으로 성황(城隍)·선왕 등으로도 불린다. 마을 수호신의 성격이 강하지만 경계신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쪽에 있는 마을. 우금고개 밑이 되며 성황당이 있음. 선황당이라고도 함.

▲선황당이 신평면 영정리 북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 서낭당이라고도 함.

▲할미당고개 정안면 어물리. 할머니 전설이 있는 서낭당이 있었음.

▲원당이(元堂-)¹ 반포면 봉곡리 새울 서쪽에 있는 마을. 소원을 비는 원당이 있었음.

▲원당이(元堂-)² 사곡면 고당리 동쪽에 있는 마을. 사곡중학교 남쪽에 자리잡음. 원당(元堂), 원당리(元堂里)

▲원당(元堂) 원당이.

▲원당리(元堂里) 원당이.

▲당산¹(堂山) 우성면 상서리 당산 아래에 있는 마을.

▲당산²(堂山) 우성면 상서리 북쪽에 있는 산. 높이 155m 되는데, 산제당이 있으며, 그 밑에 인조 때 이조참판 오백령(吳百齡)의 묘소가 있음.

▲당골[唐谷] 유구읍 덕곡리 입구에 있는 마을. 구당골에 산제당이 있었음.

▲구당골[舊唐谷] 당골 건너 쪽에 있는 마을. 당골의 원 마을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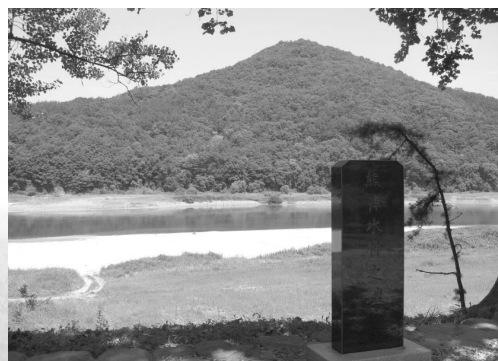
▲당말[堂村][마을] 이인면 구암리 작은 말 앞들 건너에 있는 마을. 전에 당집이 있었음.

▲당골[堂洞, 東岩里] 장기면 당암리에서 가장 큰 마을. 뒷산에 산제당이 있었음. 동쪽 기슭에 큰 바위가 서 있음.

▲당골들 당골 앞에 있는 들.

▲당골제방(-堤防) 당골들에 있는 뚝.

▲용당(龍塘) 웅진동 오얏골 북동쪽에 있었던 마을. 용당리 또는 용당터라 불린다. 이는 곰나루 동쪽 금강가에 곰나루 수신에게 제사 지내던 사당인 용제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당은 웅진사(熊津祠)라고도 불리었으며, 백제 때 세웠다고 한다.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네 개의 큰 강을 사독(四瀆)이라 하는데 웅진은 신라 때에는 서독(西瀆), 고려와 조선 때에는 남독(南瀆)이라 해서 중사례(中祀禮)로 봄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해방 후에 폐지되어 주춧돌만 남아 있었는데 1965년에 어떤 사람이 묘를 쓸 때 옛 흔적을 모두 없앴다. 최근, 그 터에 웅진수신지단(熊津水神之壇)이라는 비석을 세웠는데 주변은 플라타너스가 울타리처럼 둘러쳐 있다.



웅진수신지단(곰나루, 2008. 8. 24)

▲고당리 사곡면. 원래 고단평과 원당이란 자연 부락이 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될 때 두 동리가 합하면서 고당리라 바뀜.

2) 장승과 장승배기

배기는 박이가 연철음화 되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즉 박이→바기→배기로 된 것이다. 박이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임을 나타낸다. 얼굴에 점이 박혀있는 사람을 점박이라 하는 예가 그것이다.

땅이름에서는 그것이 박혀있는 곳을 의미한다. 즉 장승이 박혀 있는 곳이 장승배기이며, 솟대가 박혀 있는 곳이 솟대배기이다.

▲장성배기 장기면 평기리 벌터 아래쪽에 있는 마을. 장승이 박혀 있었음. 장승배기

※ 장승은 기다란 통나무나 돌 따위에 얼굴 모양을 익살스럽게 새겨 마을 입구에 세운 조각상이다. 보통 이정표 구실을 하거나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장승배기길(웅진동한산소, 2008.6.20)

▲장승배기¹ → 장성배기.

▲장승배기² 탄천면 송악리

▲장승배기³ 유구읍 녹천리

▲장승배기⁴ 유구읍 녹천리

▲장승배기길 웅진동 한산소. 마을 앞에 장승이 세워져 있는 길.

▲장승백제방 장성배기 앞들에 있는 큰 돌.

▲솟대배기¹ 장기면 장암리 석장 동쪽 산기슭에 있는 길거리. 전에 솟대가 박혀 있었음.

▲솟대배기² 유구읍 유구리 웃말 앞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한씨가 과거에 급제하여 솟대를 세웠다고 한다.

▲빗돌배기 웅진동 한산소 앞에 있는 돌. 전에 비석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 솟대란 민속에서 이듬해의 풍년을 빌며 큰 농가에서 볍씨를 주머니에 넣어 매달던 장대를 이른다. 또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위하여 마을 어귀에 세웠던 물건으로 붉은 장대위에 푸른 나무 용을 새겨 달았다고 한다.



장승(사곡면 계실리, 2006.4.15)

3) 굿당과 국사봉

이영택(1986, 한국의 지명, 태평양)에 의하면 국사(國師)는 영장(靈場)이라는 고어(古語) ‘구시’에서 온 것이며, 현대어 「굿」의 이두(吏讀)로서 이는 곧 국사봉(國師峰)이 신사(神事)를 올리는 산, 국사당(國師堂)은 신사(神事)를 올리는 당(堂)임을 뜻한다. 즉, 국사봉은 제사와 관련이 깊은 봉우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전국 도처에 국사봉이 있으며, 그 봉우리 수가 200개도 더 넘는다고 한다. 국사봉의 ‘사’자는 한자로 ‘思, 師, 士, 祀, 祠, 輝, 司’ 등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

공주에는 7개의 국사봉이 있는데 도표화 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국사당리 탄천면 북룡리에 있는 마을. 사당마루라고도 함. 무봉산 밑이 되는데 백제 시대 국사당이 있었다 함.

▲국사봉 유구읍 동해리 동남쪽 국사봉 북쪽 골짜기에 있었던 마을. 산봉우리인 국사봉(591m)은 사곡면 부곡리와 경계를 이룬다.

국수댕이 사곡면 부곡리 국사봉 정상 가까이에 있었던 마을. 1970년대 초반까지 화전민들이 살던 마을이다. 한 때는 7-8 가구가 살던 산골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그 이름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국수댕이는 ‘국수당 + 이’의 뜻이며, 국수당이 있는 곳이란 의미이다.

별신당(別神堂) 장기면 하봉리 하산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별신굿을 하던 신당이 있었음.

※ 국수당은 마을을 수호해 주는 신으로 전국에 걸쳐 신앙된 전통적인 마을 신앙의 하나였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국수봉·국사봉·국사봉 등의 땅이름으로 널리 남아 있다.



천임국사당과 국사봉(반포, 2008.5.20)

산이름	위 치	높이	관련 있는 마을 및 굿당
國師峰	사곡면 부곡리, 유구읍 동해리 경계	591m	국수댕이, 국사봉 등 마을
國師峰	장기면 평기리, 연기군 남면 경계	214m	
國師峰	정안면 대산리, 정안면 광정리 경계	289m	
國師峰	신평면 조평리, 청양군 운곡면 경계	489m	
國輝峰	반포면 마암리, 반포면 봉곡리 경계	392m	천임국사당 등 다수의 굿당
國司峰	의당면 덕학리, 정안면 어물리 경계	349m	
國士峰	정안면, 천안시, 연기군 경계	403m	



나 태 주

— 시인
— 전) 장기초등학교 교장
— 충남 시인협회 회장

공주가 세계의 중심이 된 날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나는 특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한산모시 한복. 나는 이 옷을 입고 금강 건너 연미산에 마련된 자연미술공원에서 열리는 『2008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시를 읽기로 되어 있었다. 주최 측으로부터 3시까지라는 와달라는 전갈이 있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 도로 오른쪽에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이란 표지판이 새로이 마련되어 있고 주변이 확 달라져 있었다. 본래, 이곳은 공주에서 청양과 예산 방면으로 가는 간선도로였다. 그러나 연미산으로 터널이 뚫린 뒤로는 교통량이 급격히 줄어 한적한 도로가 되었다. 그 길옆의 공간과 연미산 전체를 자연미술가협회에서 미술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산 하나를 모두 미술공원으로 사용하다니! 한국을 통틀어도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일 터이다. 이는 현 공주시장의 특단의 조치와 지원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준원 공주시장. 대학교 교수 출신 시장이기에 문화 일반이나 미술방면에 대한 이해가 깊어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행사장에 도착해보니 놀라운 변모가 한눈에 띄었다. 제법 널따란 광장이 나오고 그 옆으로 나무로 만든 누대 형식의 휴식공간이 있고 그 밑으로 계곡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역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골짜기 경사를 따라 6단으로 꺾어서 만들어진 무대는 그 자체가 자연미술품이었다. 더욱 특별한 것은 무대 주변이며 객석 깊숙이까지 미술작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다. 전혀 티 나지 않게 자연과 인간과 공작물이 어울려 편안하게 숨 쉬고 있었다. 주최 측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안내석에서 내미는 사인첩에 몇 자 적어본다. ‘참 좋으신 오늘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무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는다. 소나무 수풀 사이 빠져나온

햇빛이 플라스틱 의자 위에 얼룩덜룩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여름 날씨답지 않게 참 시원한 날씨다. 비온 뒤끝이라 그런가. 공기가 맑고 깨끗한 하늘에 바람까지 선들 선들 불어와 모시옷을 간질이고 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이 밀어닥쳤고 행사가 시작되었다. 행사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식전행사와 개막식 행사로 되어 있었다. 식전 행사는 사물놀이(신명놀이패)로부터 시작되었고 가야금 독주(홍리나)로 이어졌다. 가야금 독주를 직접 듣는 것이 좋았다. 곡은 황병기 선생의 창작곡 ‘춘설’인데 음반으로 듣는 것과는 영판 달랐다. 소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에 가야금 소리가 몸을 섞으며 파들파들 떨리는 듯싶었다. 나는 세 번째로 불려나가 시를 읽었다. 내가 한 연을 읽고 통역자가 영어로 번역된 시를 한 토막씩 끊어서 읽었다.

식전 행사가 끝나고 공식행사가 있었다. 조직위원장, 기관단체장의 환영사, 축사의 순이었다. 그리고 참가 작가들이 소개되었다. 아쉬운 점이려면 먼 나라에서 온 작가들을 뒷자리에 앉혔다는 점이다. 주최 측으로서는 겸손하게 처신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작가들인데 앞자리에 따로 앉히고 축하해 주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오늘은 공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날이라 해도 과장이 아닌 날이다. 한국의 와이티엔이 아니라 세계의 뉴스채널인 씨엔에이가 와서 취재해야 할 일이다. 공식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고승현 · 이응우 두 작가의 안내로 미술공원의 작품을 감상하는 순서를 가졌다. 루멘 디미트로프(불가리아) 작가의 ‘움직이는 오브제’, 안케 뮐린(독일) 작가의 ‘동서남북은 무엇인가’, 이응우(한국) 작가의 ‘큰 바퀴Ⅱ’, 구경영(한국)의 ‘동화同化’, 크리스티안 로스만(독일)의 ‘원’이란 작품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이번에 새로 만든 작품들 사이사이 2006년도 만든 작품들이 더러는 장력張力 tension이 헐거워져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꽤 편안해 보였다.

산에서 내려와 간단한 다과회가 있었지만 나는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오기로 했다. 아무래도 모시옷은 거동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카메라를 메고 현장에 다시 왔을 때는 여름 해도 많이 기울어 있었다. 오후 6시 30분. 서쪽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나는 참가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뷔페식으로 마련된 음식을 가져다가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식탁 아래로 어슬렁거렸다. 털빛깔이 새하얀 개였다. 보아하니 진돗개 같은데 무척이나 순하고 예쁘게 생긴 개였다. 옆자리에 있는 이응우 작가에게 개에 대해서 물었다.

“저 개는 진돗개 같은데 누가 기르는 개인가요?”

“아, 저 개 말씀인가요? 저 개는 안케 뮐린의 개입니다.”



“안케 멜린이라니요?”

“예, 독일의 여성작가입니다. 한국에 일곱 번째 온 작가입니다. 거의 한국 사람이 나 마찬가지로 됐지요. 올해 한국에 오면서 개 한 마리를 구해다 길렀는데 그 개가 바로 저 개입니다. 이름이 ‘자연이’ 이구요. 저쪽에서 식사하고 있는 저 여성분이 안케 멜린입니다.”

“그렇군요. 저분은 나도 여러 차례 보아서 낯이 익은 얼굴입니다.”

“그러실 겁니다. 저 분은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외국인 작가를 담당합니다. 물론 자기 작품도 하면서 인터넷으로 외국작가를 찾아내고 또 섭외하는 일을 맡습니다. 1991년 야투 시절, 금강국제자연미술전에 처음 와서 보고 저희들 작업에 호감을 가졌고 그런 까닭으로 독일 전시회를 주선하여 1992년 독일 행사를 성사시켜준 장본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 미술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으니 저희로선 아주 중요한 분인 셈입니다.”

내친걸음, 나는 이응우 작가에게 청하여 안케 멜린과 미니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다짜고짜로 개 이야기부터 말머리를 꺼냈다.

“저기, ‘자연이’ 란 개가 작가님 개라고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그 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연이’ 는 내가 길렀으니 나의 개입니다. 지금 여행사를 통해 독일로 데려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비용이 천 육백 유로 정도 든다는데 그래도 데려가려고 그러합니다.”

“한국에 자주 오시는 것 같은 데 한국에 오시면 무엇이 좋으신가요?”

“예,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서 좋고 서로 도와주어서 좋습니다.”

“한국의 자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특히 산이 아름답습니다. 자연의 70프로가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로 된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서쪽이나 남쪽의 평야지대에서 보았는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많이 써서 곡식이나 채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2차 피해를 줄 것입니다. 자연의 훼손은 자연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지금 한국의 자연은 보호해야할 마지막 단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터뷰는 그 정도에서 그쳤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섬뜩한 바가 없지 않았다. 외국인의 진단과 경고가 정말 가까이 다가온 듯한 느낌이었다. 나중에 들으니 안케 멜린은 대단한 자연 애호가이고 특히 동물 애호가라고 했다. 독일의 집에 동물을 많이 기르는데 유기견이나 고양이를 기르기도 하고 어떤 개는 16년이나 기르다 늙어서

죽기도 했다고 한다. 나는 안케 멜린에게 “2년 후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녁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는 약속을 했다. 인터뷰를 마칠 무렵쯤 해서 몇 대의 자동차가 행사장 부근에 도착하더니 왁자지껄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풍물패였다. 제각기 풍물악기를 하나씩 손에 들었다. 맨 앞에 오는 사람이 낮익은 얼굴이었다. 이결재 씨. 우리 고장의 알려진 소리꾼이며 놀이꾼인 이결재 씨가 온 것이었다. 이런 곳에서 이결재 씨를 만나는 것이 반가웠다. 이결재 씨가 지도하는 ‘논두렁 밭두렁’ 풍물패라고 했다. 광장에 도착한 이결재 씨와 풍물패는 두 차례에 걸쳐 걸판지게 풍물놀이를 펼쳐 흥을 돋궈주었다. 더러는 외국인들이며 자원봉사자들이 어울려 춤을 추기도 하고 북을 빌려 치기도 했다.

시간은 8시를 넘기고 있었다. 풍물패가 잠시 쉬고 있는 사이, 외국 작가들 몇 사람이 떠나고 있었다. 이번에 온 작가들은 10개국에서 38명. 그들 가운데 일부가 작업을 마치고 떠난다고 했다. 배낭을 하나씩 진 작가들은 남아있는 사람들과 부둥켜안고 길고 길게 이별의 의식을 치루고 있었다. 이응우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작품을 하는 동안 합숙생활을 했으므로 정이 깊어져 헤어질 때 많이 섭섭하다고 그랬다. 단번에 마음을 끊고 가기가 어려워 저만큼 갔다가는 다시 돌아와 또다시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었다. 참 좋은 일이다. 참으로 인간다운 일이다. 작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몇 사람 떠나는지 젊은이들의 자리 쪽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국제적으로 모인 젊은이들로서 대개 대학교 초급학년들인데 자기들이 이곳의 봉사를 하기 위해 항공료 내고 회비 내고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에 참여하여 작업을 도왔다고 한다. 올해에 온 학생들은 7개국에서 온 19명. 모두가 성실하고 꺾이지 않고 작가들의 일을 도왔다고 한다. 이응우 작가의 말에 의하면 ‘저 젊은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런 훌륭한 행사를 하기 어려웠을 것’ 이라고 했다.

헤어짐은 언제나 슬프고 힘든 것. 젊은이들의 헤어짐은 나이 든 이들의 그것보다 더욱 서툴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 걱정적이다. 떠나는 사람들과 보내는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볼을 부비며 몸과 몸이 떨어질 줄 모른다. 더러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다. 남자인데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까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다. 국적은 달라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 땅, 그것도 공주라는 조그만 시골도시의 외따른 산속에 마련된 캠프에서 저러는 것이라.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떠난 뒤에도 그들은 두고두고 한국의 자연과 한국에서 보낸 한 시절의 여름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리워질 것이다. 이응우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1차로 참여한 작가와 자원봉사자들이 떠나고 나면 내일 또다시 2차로 참여할 작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오게 된다고 그린다. 그래서 함께 생

활하면서 작업에 들어간다고 그린다. 자연미술은 완성된 작품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작과정을 보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한다. 관람객이 보는 가운데 미술가들이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미술행위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미술은 만들어 가는 과정의 아름다움과 완성된 뒤의 아름다움이 절반씩이라고 했다.

올해로서 국제 자연미술 비엔날레, 그러니까 격년제로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세 번째이다. 2004년 공주영상정보대학 뒷산 장군산에서 1회, 그 다음 2006년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서가 2회, 올해가 3회가 된다. 그동안 금강 변 곰나루, 신평면 원골, 공산성 같은 장소를 떠돌다가 이제야 제 자리를 잡은 셈이다. 국제자연미술가협회, 그러니까 야투野投는 참으로 별난 단체다. 그들이 표방하는 자연미술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주가 그 발상지요 중심지이다. 말하자면 세계 자연미술의 메카가 공주인 셈이다. 작은 지방도시 공주에 이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있겠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여기엔 몇몇 사람의 특별한 인물들의 희생과 역할이 밀받침 되어 있다. 고승현, 이응우, 강희준(충북 청주 사람이긴 하지만) 같은 야투 창립 멤버들의 고군분투가 그것이다. 처음엔 별로 알아주는 이들도 없었을 것이다. 이단아들로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외로운 길. 힘든 길. 오로지 순교자들처럼 묵묵히 외곽으로 가다보니 오늘이 이룩되었을 것이다. 우리 고장의 선구자적 미술가들에게 박수와 찬사와 경의를 아끼고 싶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들의 나이가 오늘날 50대 중반이라고 할 때 야투가 비롯된 것이 1981년이니까 그들의 나이 20대 젊은이 시절에 출발하여 30년 가까이 오직 한 마음 한 걸음 한 가지 태도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공주의 숨은 문화적 에너지의 분출이다. 이응우 작가와 기나긴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려는데 몇 사람의 작가가 배웅 차 따라나섰다. 고승현, 강희준 두 작가였다. 나는 그들 세 사람을 한 개의 미술작품 앞에 세우고 사진을 찍어주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 그들 세 사람이 모두 수염을 기른 텃석부리 사내들이었다. 그들 뒤에 서 있는 작품은 이스트반 에로스(헝가리)란 작가가 만들었다는 「만개의 젓가락」이란 이름의 작품. 멀리서 보면 커다란 버섯처럼 보이는데 실은 삼 만개나 되는 나무젓가락을 꽂아서 만든 작품이라 했다. 한국의 나무에서 나온 나무젓가락을 한국의 땅으로 환원시킨다는 뜻에서 만든 작품이라 했다. 삼 만개의 나무젓가락이라니! 그걸 한 개 한 개 꽂아서 작품을 만들다니. 오, 징그러운 지고!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바라보니 밤인데도 하늘이 맑고 푸르게 보였다. 그 맑고 푸른 밤하늘 한 가운데 밝은 한 개의 우물처럼 열아흐레 저녁달이 떠올라 빙그레 웃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다.

문화유적 답사의 가치는 무엇인가?

양 승 일 | 전 공주시의회 사무국장



공주문화원에서는 공주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유적에 대한 애호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해 매년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한다. 공주시와 공주교육청이 후원하는 '2008 가족과 함께한 유적답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소로는 우리문화를 대표하는 민족문화의 전당 '국립중앙박물관'과 유네스코 지정 한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답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I. 문화의 시대가 의미하는 것

인간의 모든 영역 앞에 “문화”란 접두사(또는 접미사)가 붙게 된 현상을 문화의 시대라 한다. 즉, 정치문화, 관광문화, 행정문화 심지어는 시위문화란 술어까지 등장한 오늘날을 문화의 시대라고들 한다. 문화유적 답사도 하나의 문화시대의 장르이다.

II. 시민 그리고 문화원

시민과 문화원은 공존하고 있다. 문화원의 활동이 넓고 활동적이면 시민의 삶은 행복하다. 지난해에 실시한 문화원의 문화유적 답사에 참여하면서 생각의 크기를 키운 바 있었는데 금년에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문화원 활동의 강렬함을 느낀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시민이다. 문화원의 좋

은 프로그램들이 다수의 마음을 얻고 지지를 얻는 것은 바로 시민의 문화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대안을 찾고 실행하는 문화원, 시민의 마음을 읽는 문화원. 그럼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원 운영이 아니겠는가. 문화원의 유적답사는 시민에게 유익한 정신을 제공해 주고 시민과의 일체화를 기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역사와 조상의 슬기를 시민과의 관계에서 동질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여러 면에서 감도 차이를 느낀다.

III.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의 파워 브랜드

박물관은 역사, 민속, 산업, 과학, 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널리 수집 보관하고 전시하여 사회교육과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게 만든 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가 시간을 함께했던 국립중앙 박물관은 진열된 모든 유물들이 꺼져버린 생명의 소리 없는 집합체가 아니라 현대라는 삶의 광장에서 함께 생성하고 발전하는 생명체의 대합창의 마당이었다.

유리창 속에 저만치 떨어져 진열되어 있는 “남”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낌을 주는 국민의 동반자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고관, 역사관, 미술관 I · II, 기증관, 아시아관으로 구분되어 전시되고 있었으며 답사자들의 이해의 접근을 도왔다.

1. 고고관

고고관은 시대별로 특징적인 유물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구석기시대부터 발해에 이르기까지 선사와 고대의 시간을 넘나드는 전시실로서 수많은 유물을 만나볼 수 있었다.(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원삼국,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통일신라, 발해)

2. 역사관

역사관은 우리의 대표적 기록문화유산인 한글, 금속활자를 비롯하여 사료적 가치가 큰 금석문, 문서, 지도 등이 전시되어 한국의 시대상과 문화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3. 미술관 I

미술관 I은 선과 색채로 발휘된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과 종교미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특히 간결한 아름다움과 높은 품격이 돋보이는 목칠공예와 9m가 넘는 불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철화철 백자는 산화철 연료를 사용하여 흑갈색 무늬를 그린 백자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었다.

4. 미술관 II

미술관 II는 한국의 불교조각과 공예문화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특히 세계 최고 걸작의 하나인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을 비롯하여 뛰어난 불상과 한국 도자문화의 정수를 관람할 수 있었다. 고려 13~14세기의 작품으로 고층 공양탑은 예술의 극치라고 평하고 싶다. 탑을 세우는 것은 그 곳에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라고 주를 달고 있다.

5. 기증관

기증관은 개인 소장품의 기증을 통해 인류의 전통문화, 선양에 기여한 분들의 고귀한 뜻이 담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손기정 기증 문화재로 “투구”를 만나볼 수 있었다. 투구는 그리스 기원전 6세기경 제우스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용으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서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는 부상품이었으나 그 당시 전달되지 못하고 베를린 박물관에 보관되어 오다가 1986년 뒤늦게 수여된 것이었다.

6. 아시아관

아시아관은 아시아 문화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며 아시아 각 문화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특히 중앙아시아 실에서는 동·서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된 독특한 실크로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7. 국립중앙 박물관의 파워브랜드

문화유산 창출이 생존의 척도라 할 박물관은 브랜드 경쟁인 듯하다. 박물관 브랜드 파워시대라 할까?

영국의 대영박물관 등 어찌 보면 박물관들이 브랜드 가치이며 문화관광의 브랜드 파워로서 그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지만 우리 답사단이 방문한 국립중앙 박물관도 지구촌 무한경쟁 글로벌시대의 파워브랜드였다.

브랜드 파워는 박물관의 내재적 가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파워브랜드 만이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파워브랜드인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처럼 특정시대와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시대의 역사적 문화유산이 보존·전시되어 있어 우리나라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었다. 특히 영상실에서는 공주 송산리 무령왕릉을 발굴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와 각종의 백제 유적 유물을 장시간동안 소개하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뿌듯했다.

Ⅳ. 조선 행궁 건축의 백미 “화성행궁”

1. 화성행궁

화성행궁은 1789년(정조 13년) 수원 산읍치 건설 후 팔달산 동쪽 기슭에 건립한 행궁으로 수원부 관아와 행궁으로 사용되다가 1794년(정조 18년)~1796년(정조 20년)에 걸쳐 진행된 화성 축성기간에 화성행궁을 확대하여 최종 완성되었다 한다. 정조는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아버지인 장헌세자(사도세자)의 원침인 현릉원(현재의 융릉)을 13차례 참배하고 이 기간 중 행궁에서 유숙하기도 하였다.

2. 봉수당

봉수당은 화성행궁의 정당으로 이곳에서 정조대왕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연 곳이었다. 신평루 →

좌익문 → 중앙문을 거쳐야 봉수당에 이른다. 신평루는 화성행궁의 정문이며, 신평이란 국왕의 새로운 고향이란 뜻으로 정조대왕의 수원사랑을 보여준다. 경룡관, 복내당, 낙남헌, 유여택, 봉수당, 장락당, 득중정, 노래당 외 정리소, 신평루, 좌익문, 중앙문 등이 있다.

3. 과학기술의 발달 - 거중기

수원화성은 평지성으로 우리나라 성 가운데 가장 발전되기도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 “한국 성곽의 꽃”, “한국 성곽의 총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의 둘레가 5,520m로 석벽은 다듬은 돌과 벽돌을 섞어서 쌓았으며 성을 쌓는 데는 당시 전통적인 방법과 실학자(정약용, 유형원)들의 과학적 지식이 고려되었으며 돌을 들어올리는 기구인 거중기와 녹로를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거중기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의미하며 신평루를 들어서자마자 좌측에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V. 문화유적 답사의 가치

1. 답사로 인하여 역사적 감각을 새로이 길렀다

문화유적 답사는 우리 모두가 지배하여야 할 의식으로 문화원의 답사 프로그램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문

화유적 답사는 문화관광과 역사적 고찰 측면에서 모든 의식을 견인한다. 따라서 답사는 역사의식의 기본이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육성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초등 어린학생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넓은 답사층을 형성했던 이번의 문화유적 답사는 역사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요인이 되기에 바람직한 실천교육이었다. 따라서 문화유적 답사는 역사 전공자들만을 위한, 연구를 위한 창작품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 걸쳐 남녀노소 어떤 직업이든 흥미를 지닐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호감이 갔다.

2. 사람과 역사는 하나다

모든 역사가 사람의 삶과 깊은 함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역사를 벗어나 살 수 없다. 또 사람과 역사의 관계는 보편적 진실과 특수한 진실이 만나면서 아름다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문화유산의 현상에 대하여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저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미술관에서 크고 작은 시대적 불상을 보면서 불교적 상상력이 공감을 얻는 것은 불상이 크고 작아서가 아니라 불상의 자리와 자태가 그윽해서다. 그 문화유산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생명력을 넣어주어” 관찰하면 그

문화유산은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

답사자에게 생명현상은 모든 대상에 숨어있는 근원적 숨결에 대한 깨달음으로 귀결된다 하겠다. 따라서 보인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답사자들은 본다는 의미보다 보인다는 속 의미를 깨달으며 답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화성행궁도 하나의 박물관이었다

화성행궁이 그 규모의 방대함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행궁이 보여주는 진실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읽어낼까 생각하게 한다. 행궁도 하나의 박물관이었다.

VI. 맺는말

1. 아쉬웠던 점

문화유적 답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수원의 화성행궁이었다. 각기 2시간 여의 고찰은 시간상 너무나 촉박하고 짧았다. 문화유적 답사는 단순한 형상의 바라봄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해적(自解的) 설명과 문화유산의 깊은 뜻과 다기(多技)한 기능을 고찰하여 역사성의 현대적 이해를 돕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번의 문화유적 답사는 형상의 바라봄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2. 시민에게 기여한 프로그램

답사자들의 신념은 우리 문화유적 답사의 생활화에 있었다. 문화원에서 동일

한 의의를 갖고 시민에게 다가가 다포형성을 하고자 한 점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화유산, 역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자궁이 있기 때문일 것이리라. 우리의 문화유산을 답사케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적 삶과 문화를 보여주려는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이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3. 맺으며

박물관에서 우리 역사의 유구함을, 화성에서는 뛰어난 조선시대의 축성기술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 몸에 흐르는 피요, 선조들로부터 면면히 물려 받아온 우리의 살점들이다. 문화유적 답사로 선인들에 대한 예술적 안목과 감식력을 두루 갖추게 되었으며 예지를 길렀다. 주변국의 망언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시점에서 역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역사의식을 되새기는 기회를 창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 바람직스러웠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구 위의 어느 국가든 세계 문화의 가치관에 의한 관광, 답사자원으로 보편화되도록 노력하자. 역사적 인식과 예술적 감각을 길러 아끼고 사랑하자. 앞으로도 문화원이 시민과의 동반자적 관계가 지속되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기를 희망해 본다.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주 사랑의 호스피스



한국노 회장

이번 호에는 “공주 사랑의 호스피스”라는 봉사단체를 소개합니다.

우선 ‘호스피스’란 말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말합니다.

공주 사랑의 호스피스를 설립한 목적이 그렇습니다. 말기의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도움을 주며,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게 살도록 하며, 환자와 가족 간의 사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설립 시기는 1998년 2월에 의사, 목회자, 사회복지사, 교수 등 전문위원 29명을 위촉하고, 공주 대학생 선교회 박병선(황영숙 사모)을 대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하여, 수료한 자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지원서를 받아 현재 6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은 이렇습니다.

매년 1회 자원봉사자 교육, 그리고 보수교육으로 한국호스피스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2회, 대전·충청지역에서 실시하는 교육 2회를 통하여 자질함양과 정보교환, 봉사의 질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 사랑의 호스피스는 가정방문형 호스피스로서, 가정에 임종을 앞둔 환우와 연결되면 1조 6명으로 팀을 조직하여, 2명씩 짝을 이루어 일주일에 3회 방문을 합니다. 형편에 따라 하루 2~4시간씩 환우와 그 가족을 돌보아 드립니다. 또한 공주의료원에 협조를 얻어 환우가 입원하면 의료원의 입원실로 방문하여 돌보아 드립니다.

매년 20여명을 돌보아왔으며, 그중 80퍼센트는 임종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금년은 공주 사랑의 호스피스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호스피스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수료생이 1,164명에 이르고, 봉사자로 나선 분이 234명, 봉사자들에게 섬김을 받다가 임종을 맞이하신 분이 208명에 이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돌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년 11월에는 기념행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봉사자들에게 격려와 표창의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봉사는 해마다 늘어나는 말기 암환자들의 실태를 예로 들지 않아도, 꼭 필요한 봉사활동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의 통증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옆에서 지켜만 봐야 하고, 마침내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심적·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 생각할 때에 호스피스 봉사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아끼지 않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천사가 되어 보십시오.

글|김춘원 명예기자



사랑의 호스피스 자원봉사



한호협 춘계세미나 참석



환자 돌봄



대전충청지회 연합세미나

탄천면 남산리(3)



- 마을의 위치와 유래
- 마을의 형성과 특징
- 남산의 성씨
- 송정의 세 서당 이야기
- 남산리 입석과 계백장군의 전설
- 남산골 금광
- 남산리의 대동고사
- 남산리의 두레
- 남산리의 우물
- 남산리의 민속놀이

금광과 서당의 마을

금광과 서당의 마을



동구나무제가 올려지는 안골의 느티나무 정자

남산리의 대동고사

남산리에는 두 개의 대동고사가 올려진다. 특이한 것은 작은 마을이 많으면 대동고사도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남산리에는 안골의 동구나무제와 송정의 부처당이 대동고사 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동고사가 다른 마을보다 적은 이유를 묻는 말에 마을의 노인은 “금강 이남의 산세를 둘러본 선현이 공주에서 탄천으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는 십리(4km)간에 거먹소(黑牛)가 물을 먹는 형국으로 소의 멍에 터에 당

하는 월안이가 명당이니, 명당에 사는데 무엇 때문에 고사를 지내느냐?”고 말하여 이 말을 들은 남산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보다 명당자리를 찾는 마음이 앞선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일명 흑우명당(黑牛明堂)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은 매우 컸으나 근년에 들어 큰길(고속도로 따위) 일 여느라 산천을 헤집어 놓아서 명당은 없어졌을 것이라 한다.

지금도 장군봉 아래 남산골의 노인들은 동네 고사에 대하여 물으면 “우리 동네는 명당에 터를 잡아 애당초 고사

가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나 아주 낮은 고개에 위치하여 고개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당산제에 서낭당무지(돌무지)가 높았다는 증언이나 장군봉 정상부분(증언의 표현상 말랭이)에 산제당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음을 감안하면 일제 강점기 이전의 조선조 전통사회에서는 서낭고사나 산신제가 대동제(大同祭)로 열렸던 것이 금광의 출현, 조선조의 몰락과 식민지 치하의 시작 등의 사유로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구나무제와 부처당이 고사는 다음과 같다.

동구나무제

남산리 안골의 동구나무제는 남산1리 10개 작은 마을 중 유일하게 올려지는 대동고사다.

안골이 남산의 금광 중심지여서 마을의 번성과 쇠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동구나무제 역시 마을의 번성과 쇠퇴에 비례하여 진행되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소를 잡는 동구나무제라는 말을 들을 만큼 성대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다.

동구나무제의 진행절차는 ①유사선정 ②샘물 품기(소제-掃除) ③건립풍장 ④동구나무 금줄 두르기 ⑤제수 장보기와

술담기 ⑥제수 마련 ⑦동구나무제 ⑧샘고사 ⑨음복의 순이며 유교식으로 올려지는데 절차는 계룡면 일원의 대동고사와 유사하며 특이한 점은 없다.

이 나무는 1982년 공주시(당시 군)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로서 수고(樹高)는 21m, 나무 둘레는 5.4m. 수령은 39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천년 나무라고 부른다.

동구나무제라는 이름은 이 마을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적은 것으로 일반적인 이름은 <괴목제>다.

부처당이 동네고사

부처당이 동네고사는 남산2리인 송정에서 여는 동네고사로 정월 대보름에 열린다. 앞서 전설을 소개하면서 설명한 대로 정월 초이레부터 열나흘까지는 개인의 가정에 안녕을 비는 안택(安宅) 고사들이 올려지고 마을 고사는 정월 대보름에 올리는 형태인데 1980년대만 하여도 많은 집에서 안택 고사를 올려 가정별로 날짜를 협의하여야 할 정도였다 하나 지금은 7-8세대만 고사를 올린다.

가정의 안택고사는 특별한 고사음식을 만들지 않고 시루떡에 정한수를 떠놓고 올리는 형태인데 시루떡은 적게는 서 되 서 홉을, 많게는 한 말 시루를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시루떡의 아래 부분은 사람이 먹기 좋은 팔고물

떡을 하고 위에는 고물을 쓰지 않는 흰무리를 얹힌다.

올려지는 시간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다양하고 가정별로 올리는 시간은 다르며 남자는 떡시루를 지게에 지고 나가고 여인들은 기타의 제수를 이고 나가고 선돌 앞 고사들에 진설을 하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의 절차는 유교식과 무교식이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떡시루 앞에 잔을 올리고 절을 올린 후 아낙네들이 가정의 평온을 기원하여 손을 부비며 주문을 외듯이 기원을 올리는 형태이다.

대동고사는 ①유사선정 ②건립풍장 ③부처당이 소제와 금토(黃土) 설치 ④제수 장보기와 술 담기 ⑤제수 마련 ⑥동네 고사 ⑦음복인데 복떡을 나누고 술을 나누어 먹는 음복은 부처 앞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소란을 떨 수 없다 하여 마을로 돌아온 후 실시한다. 제례의 절차는 유교식이고 특이사항은 없다.

남산리의 두레

남산리 두레는 송정골 두레와 남산골 전체를 아우르는 산골 두레 둘이었다.

송정골 두레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신기하리만큼 남산의 금광과 격리되어 있던 마을답게 외부의 영향을 받

지 않고 현상을 유지했으며 일제 강점기 후기 일제에 의하여 두레가 탄압을 당할 때에도 별다른 탄압 없이 운영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방 후에도 특별히 규모가 커지거나 발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평범한 두레였다.

반면 산골두레는 기복이 심했다. 남산골 열 동네 중 많을 때는 일곱 개 마을이 참여하였지만 적을 때는 안골과 건평 일부만 두레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두레를 서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산골두레는 금광의 퇴조와 금광의 인부로 벌어들인 인건비로 인하여 전답을 늘린 농부들로 인하여 두레 규모가 갑자기 커지고 여름두레 먹는 자리가 남산이 뒷산으로 옮겨지며 풍장의 일습과 나발을 새롭게 사들일 정도로 번성한다.

즉 두레가 소멸된 것은 직접적인 두레 조직의 경우 송정두레는 1973년까지, 산골두레는 1969년까지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봄두레를 먹던 풍습은 모내기 날짜를 조정하고 마을 품삯을 조정하는 정도로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오다가 폐지되었다.

여름두레의 공동작업은 양 두레 모두 한물두레로 논매기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수리 안전율이 높지 않아서 모내기한 사정에 따라 아시나 두벌 또는

만물논매기 중 한번만 공동작업에 의지하는 형태였다.

두레의 조직은 평범하여 좌상, 공원 총각 좌상이 활동하였으며 품배의 명칭은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품배이자리로 불렸다.

두 마을 두레의 여름두레 행렬은 농기→령기→나발꾼→풍장꾼→좌상→장정→품배이 자리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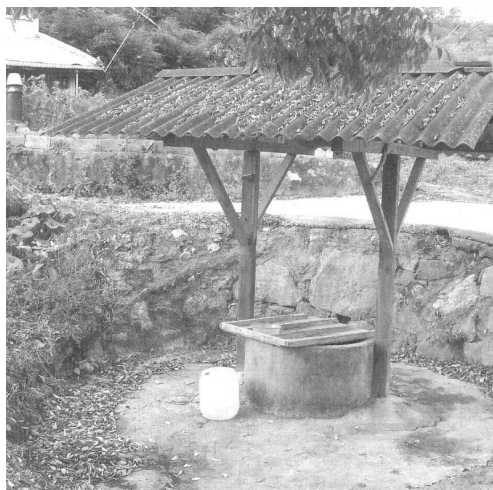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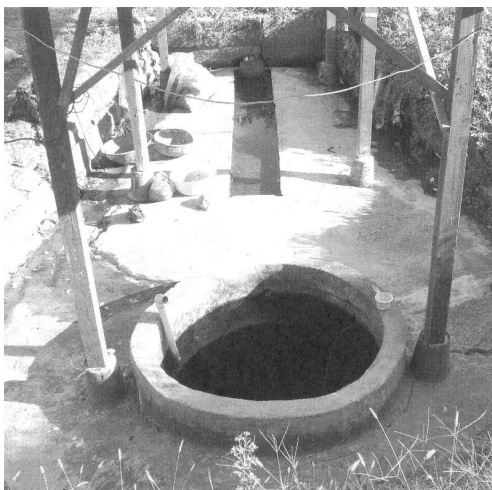
남산리에서 대농 소리를 들어온 사람은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농사를 지은 김홍규이며 남산리 두레의 마지막 풍장잡이는 상쇠 서병안, 징 최병두(최병두 씨는 나발을 잘 붙여 나발도 붙였음), 장구 김명진, 북 박창선이며 나발은 정운영 씨가 잘 붙었다 한다.

한마을에 두 개 이상의 두레가 존속

할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은 두레 싸움을 하는데 송정두레는 산골두레를 유교적인 정신이 없는(근본 없는) 두레라 하여 경원(敬遠)하고 산골두레는 송정두레를 가난한 두레라 하여 경원하여 서로 싸우지 않았으며 산골두레는 부여군 초춘면 진우리와 그 이웃 두레인 비안두레와 두레싸움을 했다.

남산리의 우물

남산리는 물이 귀한 마을이었다. 남산리 1·2구를 합치면 모두 11개의 작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안정적인 우물은 남산골에서는 안골과 산 아래 두 동네뿐이었으며 송정리에는 어떤 가뭄



지금도 사용하는 송정의 동네샘과 사용하지 않는 안골샘의 모습

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마을 한복판에 있어서 이를 동네샘이라 불렀다.

나머지 마을에는 우물이 있었지만 가뭄이 들면 나오지 않는 샘이 많아서 가뭄이 심할 때면 이웃 마을에 가서 물을 길어오느라 물동이와 물지게가 줄을 이었다고 한다.

열한 개 마을에 있던 우물 모두는 거의 흔적 없이 사라져 찾아볼 수 없는 데 송정의 동네 중심에 자리잡은 동네샘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며 안골 정자나무 아래 자리잡은 동네 샘은 사용하지 않지만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마을의 우물들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안골의 동네 샘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마을의 우물들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안골의 동네 샘은 이 마을의 대동고사인 동구나무제에 샘 청소, 샘 고사, 제수 마련, 유사의 목욕 등에 쓰였다.

남산리의 민속놀이

남산리는 특별한 놀이문화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주일원의 민중민속과 같은 유형이 이루어졌으나 시군 경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웃 마을과 싸움을 하는 형식의 민속놀이인 ‘돌팔매싸움’ ‘불깡통싸움’ 등 몇 가지가 성행하였다.

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풍장

남산리에는 송정과 산골 안골에 풍장패가 있었다. 세 마을 모두 늦을마치라 하여 네마치가락(사채)를 길군악(굿거리)으로 혼하게 쳤으며 삼채는 세마치라 하여 주된 풍장가락으로 삼았다. 이외로 잣은마치(이채, 휘몰이), 춤장단(굿거리), 질굿나비 정도인데 칠채는 연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악기의 구성은 상쇠와 부쇠가 각 1명, 징 1명, 장고북이 각기 2-3명, 북구재쟁이 3-4명, 나발 1명 정도로 일반적 마을의 적은 규모 정도였다. 송정리에서는 아직도 젊은이들이 풍장을 즐겨 치며 실력도 상당한 편에 속한다.

불깡통 싸움

정월 대보름 아이들이 돌리는 지불놀이 중 하나인 불깡통돌리기가 이웃마을인 부여 초춘면의 아이들과 불이 가득 담긴 깡통을 서로에게 던지는 싸움으로 이어졌다.

불을 사용하면서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깡통에 맞아 머리가 터지는 일이 있었으며 옷을 태워먹는 일은 흔했다 한다.

공주의 어린이들이 부여의 어린이들을 깔보는 경향이 심해서 싸움을 거는 쪽은 공주가 많았으나 더러는 부여에

서 습격을 하듯이 쳐들어 와 싸움을 걸었고 부여가 먼저 공격하는 해에는 싸움이 컸다 한다. 불깁통 싸움에서 이겨야 마을에 풍년이 든다는 믿음이 있어서 시작되면 매우 격렬했다.

돌팔매질 싸움

이웃 마을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돌을 던지는 싸움. 매년 있었던 것은 아니며 별도의 싸움판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두레꾼들이 들에서 만나면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팔매질을 하는 싸움을 하였다 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재미삼아 하는 놀이로써의 싸움이 아니라 성인들이 관습에 의한 규칙에 따라 행해진 싸움인데 우연히 팔매질 싸움이 일어나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어서 산골두레가 부여 경계로 일을 나갈 때는 삼태기나 지게에 돌팔매 싸움을 할 돌을 지고 나가는 때가 많았다 한다.

싸움의 승패는 가리지 않고 노인의 표현대로 ‘할 만큼 하구 나면 그치는 싸움’이었다.

장치기

야산이 많은 마을답게 많은 장정들이 장치기를 즐겼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도 장을 쳤다는 드문 마을 중에 하나로 장치기는 밖으로 쳐내면 득점을 인정하는 먹장치기였으

며 인원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모여든 인원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였다.

겨울철 나무하러 가는 길에 치는 정도가 일반적이는데 이 마을에서는 ‘겨울에 할일 없으면 장을 쳤다’는 말을 할 정도라서 운동경기로 장을 친 것으로 보여진다. 장을 치던 곳은 편덕으로 불렸으며 장정들은 장치기 편덕이라 칭하였다.

동네 벌

마을에서 시행한 동네벌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도둑질이나 불효에 대한 풍문이 돌거나 행동으로 잘못된 것이 목격되면 마을의 어른들이 불러다가 훈계를 하는 정도였으며 특히 송정리 사람들은 마을의 안온한 기풍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서 ‘송정골에는 살인자가 들어와도 문제 없이 산다’는 것이 마을의 자랑이었다고 말한다.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은 남산의 모든 마을에서 없었다고 증언되는데 금광으로 인하여 번성했던 시절 금광회사에 잘못 보인 사람은 조리돌림을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것이 부끄러우면 이사를 가는 일은 있었다 한다.



노씨 삼의사 생가

위태로운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殉義 三兄弟

盧氏 (應院, 應卓, 應皓) 三義士

노응환(盧應院 1555~1592)

선생의 자(字)는 명원(明遠)이고 호는 수암(守庵)이며 품계(品階)는 正三品이다. 조헌 선생의 門下生으로 문장과 학술로 세상에 명성이 높았으며 公州市 牛城面 貴山里에서 성장하였다. 선생은 가선대부 호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 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노세득의 아들 3형제 중 큰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孝誠과 友愛가 깊고 품행이 단정하였던 公은 조헌 선생 門下에서 글을 배우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생의 휘하에 참여 淸州城 싸움에서 大勝을 하였다.

임진 8월 18일 錦山이 적의 수중에 함락된다는 난보(亂報)를 받고 항전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조헌 선생과 같이 장렬하게 순절(殉節)하였다.

노응탁(盧應卓 1560~?)

선생의 자(字)는 계희(季晦)요, 호는 국재(菊齋)이며 문장과 학술이 뛰어나 세상이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선조(宣祖)에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벼슬에 올랐으며,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兄 응환(應院)과 동생 응호(應皓)와 더불어 조헌 선생의 휘하에 들어가 淸州城 싸움에서 대승을 하였다.

선생은 조헌 선생 사후(死後) 이산겸의 산하에서 서기로 활동하였으며, 光海君 元年에는 조헌 선생의 사우(祠宇) 사액(賜額)을 위해 國王에게 상소하는 등 계속 활동하였으며 조정에서는 순조(純祖 31년)에 충의정려(忠義旌閭)를 하사받았다.

노응호(盧應皓 1565~1592)

선생의 자(字)는 시회(時晦)요, 호는 체헌(?軒)이며 조헌 선생의 문하생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두 형과 같이 義兵에 참여하였다. 선생은 호서각지(湖西各地)에서 군량미(軍糧米)를 운송하라는 명을 받아 그 功이 컸으며 錦山전투에서 七百義士와 함께 순절(殉節)한 兄의 시신(屍身)을 거두어 장

사를 지냈다.

조정에서는 선생에게 직장(直長)이라는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구국(救國)과兄의 원수(怨讐)를 갚기 위해 죽기로써 토적(討賊)을 맹세하고 급기야는 진중(陳中)에서 전몰하니 나이 19세였다.

순조(純祖 32년)에 후율사(後栗祠)에 종향(從享)되었으며 조정에서는 「군량(軍糧)」 두 자를 특사(特賜)하였으며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겸 춘추관편수관 전생서직장(通政大夫 丞政院 右副承旨兼 春秋館編修官 典牲署直長)을 추증(追贈)하였다.

선조(宣祖 25년) 임진(壬辰) 4월 왜적이 침입하여 승승장구하여 우리의 국토가 왜적의 수중에 들어가니 국운(國運)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매우 위태로웠다. 이때에 충義之士가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여 왜적을 토벌하고 조국을 수호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三義士는 萬頃人 盧世得의 아들로써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모두 조헌 선생의 휘하에 들어갔다. 옥천(沃川)에서 義兵을 모집하여 靈圭大師 등 승병(僧兵)과 합세하여 왜병을 격파하고 淸州城을 수복하였다.

壬辰 8月 왜적의 대부대(大部隊)가 금산을 침범하였다. 이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군

(友軍)이 도착하기 전에 조헌 선생이 거느리는 七百義士가 먼저 錦山으로 향하였다. 왜적이 이를 탐지하고 미쳐 진(陣)을 갖추기도 전에 세 방향에서 공격해 왔다. 이에 단약(單弱)한 병력으로 막강한 왜적과 맞서 용전분투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七百義士가 동시에 전몰하였다. 그 당시 의병은 모두 훈련을 받지 않은 백의종군(白衣從軍)한 군사로서 무기도 없이 곤봉을 휘두르며 우수한 장비를 갖춘 왜적에 대항하여 오직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큰 功을 세우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진충보국(盡忠報國)의 崇高한 정신은 길이 우리 민족의 귀감이 될 것이다.

1978년 국사편찬위원회의 考證을 받아 三義士生家址가 충청남도 지방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었다.

후손과 선양회에서는 三義士의 높은 뜻과 얼을 기리고자 매년 음력 8월 18일 祭香을 올리고 있다.

리듬과 율동의 하모니

댄스스포츠



댄스스포츠의 개념은 무도회에서 추는 춤이라는 의미의 볼룸댄스(Ballroom Dance)를 말하며, 세계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마다 민속무용이 있으나 댄스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도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춤으로 남녀가 한 쌍을 이루어서 음악의 리듬에 맞추는 가운데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예술의 미적 가치를 창조하는 스포츠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의 댄스스포츠는 사교적 목적보다는 신체단련을 위한 운동이라는 측면에 더욱 비중을 두어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대학에서의 교양과목과 각급 학교의 특별활동, 문화센터나 사회교육원 등에서의 강좌로 채택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댄스스포츠 = 댄스 + 스포츠 = 예술 + 생활체육 = 예의 + 질서

댄스스포츠는 댄스의 특성과 스포츠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댄스스포츠는 예술성이 풍부한 실내 스포츠인 동시에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정의되고, 댄스스포츠의 본질은 전통에 의한 예의와 질서로 이루어진 도덕적 가치관을 지닌 인격표현의 선진형 율리문화라고 한다.

댄스스포츠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스포츠이며 레크레이션으로 즐길 수 있다. 반면에 점점 숙달이 되어 초보적 수준에서 상급의 수준에 이르게 될수록 체력과 고도의 기술 그리고 파트너와의 조화를 요하는 것이 댄스스포츠의 특징이다.

댄스스포츠의 멋진 신체의 대근육을 활력있게 움직이는 스포츠성, 음악의 리듬과 함께 율동하는 음악성, 파트너와의 호흡을 맞추는 일치성, 스텝연결과 표현의 창의성, 공간사용의 다양성 그리고 아름다운 의상과 남녀의 정중한 예절 등이 함께 어우러진 예술성에 있다. 또한 댄스스포츠의 매력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보는 사람에게도 예술적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댄스스포츠는 댄스와 스포츠의 특성과 매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댄스스포츠는 다양한 동작과 기술로 구성된 도형을 연결시켜 춤이라는 실제적 움직임으로 아름다운 선과 공간미를 창출하는 시공간적 예술이다. 또한 남녀가 한 쌍이 되어 춤추는 커플댄스라는 형식상의 특성을 갖게 되며, 아름다운 움직임을 연출하기 위해서 파트너쉽을 발휘해야 한다. 댄스스포츠를 수행하는데는 음악이 필수적이므로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게 되므로 리듬댄스라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댄스스포츠의 동작과 기술은 주로 전진, 후진, 회전으로 구성되며, 기본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형성(Balance)이다. 남녀가 각기 자기 중심을 잡고 평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간상 운동 중심축을 함께 이동하게 되므로, 운동역학적 측면에서 평형성을 길러 주는데 매우 적합하다. 또한 전진과 후진, 회전 동작들은 주로 워킹(Walking)으로 진행되므로 근력과 지구력을 발달시켜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빠른 워킹으로 리듬감을 유지하므로 심폐기능의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댄스스포츠는 운동강도와 지구력, 평형성의 측면에서 어떤 다른 스포츠종목에 뒤지지 않으며, 댄스스포츠를 생활체육의 한 분야라고 볼 때 운동강도와 운동시간적 측면에서 일반인에게 우수한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이 된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탄력있는 몸매를 유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성이 있다.

댄스스포츠는 매우 훌륭한 신체활동이며, 현대사회에서 오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게 해 준다. 특히 이성간의 건전한 만남과 사교를 위한 활동으로 매우 적합하며, 음악의 리듬과 일치감을 느끼면서 움직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 주는 레크레이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주문화원 댄스스포츠 강좌 안내

강좌시간 : 주간반 - 화,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야간반 - 월, 수요일 오후 7시 ~ 9시

강의내용 : 자이브, 차차차, 룸바, 왈츠, 탱고 배우기

강 사 : 최경희 (대전 댄스스포츠학원 강사)



사이버 공주시민, 가입 10만명 돌파

사이버 공주시민은 국내·외 남녀노소 누구라도 인터넷상에 사이버 공주시민으로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의 이전 없이도 도시와 농촌간 생산적인 정보교류는 물론 다양하고 푸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절차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cyber.gongju.go.kr>를 입력,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공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의 어려움인 인구감소 요인을 극복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이버 공주시민 제도가 지난 6월 2일 홈페이지를 임시 개통한 이후 7월21일, 개통 한 달 20여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사이버 공주시민」10만명의 돌파로 공주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농촌발전과 지역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사이버 공주시민들 에게는 금강의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무공해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콘텐츠 개발과 내용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추가, 사이버 시민상호간 사회경제 활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 100만명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사이버시터를 만든다는 각오다.

공주시, 서울사무소 개소

- 인적네트워크 구성 및 중앙과의 전진기지 구축

공주시는 8월 7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대성스카이렉스 502호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심대평, 정진석, 김상희 국회의원, 윤석금 웅진그룹회장 등 공주지역 각급 기관장과 출향인사 100여명의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한 서울사무소(소장 오명규)는 앞으로 직원 1명이 상주해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 출향인사의 네트워크 구성, 5도 2촌 주말도시 홍보 및 수도권 기업체 투자유치 홍보활동 등 중앙과의 가교·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사무소 개소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종로1가에 공주시청이 하나 더 있는 것”이라고 소개 하면서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5도2촌 주말도시, 사이버공주시민 100만명 모집등과 함께 공주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수도권 기업체의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통해 ‘힘찬도전! 위대한 공주건설’을 건설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공주시, 행정도시내 ‘행복아파트’ 건립 추진

- 500세대 수용, 지하2층·지상15층 아파트 6동

공주시는 행복아파트 신축계획에 따라서 행정도시내 1단계 사업지구(1-4 생활권) 2만㎡의 부지에 5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2층에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6동(건축연면적 2만9,750㎡)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액으로는 충남도가 144억 6,600만원, 공주시가 18억 8,000만원, 연기군이 122억 8,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25%에 해당하는 97억 9,400만원은 한국토지공사에 부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6년 3월 공주시를 비롯한 5개 행복아파트 건립 협력기관이 합의해 행정도시 예정지역내 소유재산을 행복아파트 건립비용에 출연기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공주시,

시민을 재난위험으로 보호할 생활안전 길라잡이 발간



꼭 한번 열어봅시다. 행복의 단지를

공주시가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생활안전 길라잡이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꼭 한번 열어 봅시다. 행복의 단지를’이라는 생활안전 길라잡이 소형 매뉴얼 책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에 큰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생활주변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 맛 집 심사 100곳 선정

- 지역대표 맛 집, 먹거리 발굴해 관광상품화



공주시는 8월 13일 공주시보건소 회의실에서 공주 맛 집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추천된 200개 업소 중 현지점검 및 음식문화개선 T/F팀의 1·2차 회의 등을 거쳐 1차로 선정된 120개 업소와 시민추천 업소, 기타 추천업소 등 140여개 맛 집에 대한 심사를 벌여 90곳을 선정하고, 충남도가 선정한 외국인 이용가능 음식점 10곳까지 합쳐 100개의 음식점을 ‘공주 맛 집’으로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맛 집들은 대부분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음식점과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음식점 등 시설보다는 전통과 맛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공주시, 여권신청 고객 고품격 케이스 증정

지난 6월 여권 직접발급 업무에 들어간 공주시가 여권을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예쁜 케이스에 담아 교부해 고객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충청남도

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고객서비스로써 여권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찾기에 고민하던 중에 “예쁜 케이스 있으면 좋을 텐데”하는 고객의 한마디에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했다.



공주시가 도입한 여권케이스 디자인은 앞면에 공주시를 상징하는 공산성 수문병 교대식 전경사진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국호, 여권종류, 문장을 넣었고, 뒷면에는 하이터치 공주시 브랜드를 삽입하고 하단에는 공주시,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홈페이지를 삽입 제작한 게 특징이다.

공주시, 8월4일부터

6급 공무원을 1일 2명씩 민원안내 도우미로

공주시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 입구에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를 전면배치,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8월4일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민원인의 내방이 많은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집중근무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특급노하우와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6급 공무원을 1일 2명씩 지정해 사진과 이름을 새겨진 명찰을 착용하고 정해진 자리 없이 유동적으로 근무하며, 민원상담 및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요령 안내, 민원제도개선과 건의사항 청취 등 민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서비스 제공한다.



이동섭 의원, 제1회 중앙매일 의정상 수상

제5대 전반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혀



공주시의회 이동섭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대전 중앙매일 신문사에서 열린 제1회 중앙매일 의정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이동섭 의원은 “제5대 전반기 공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렇게 지역신문에서 표창까지 해주시니 더없이 고맙고 기쁘다”며 “더욱 분발하

라는 의미로 알고 공주시의회 발전과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공주알밤, 대통령 하사품으로 제공된다

공주시는 8월 11일, 관내 일원에서 생산되는 공주알밤을 청와대를 찾는 손님들에게 대통령 하사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분량 단위로 포장해 납품했다고 밝혔다. 9월 1일과 2일 사이에 납품한 명품 공주알밤은 600g들이 1만 5,000봉지로 전원 공주 지역에서 생산된 알밤이다. 차령산맥 아래인 공주시 정안면을 중심으로 재배를 시작한 공주알밤은 관내 전 지역에 고르게 재배되면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생산량의 13.2%, 충남 생산량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꽃이 만개한 정안천 순환산책로에서 휴식을”

공주 정안천변 순환산책로에 다양한 여름 꽃들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1.6km에 달하는 정안천 순환산책로에 흐드러진 여름 꽃들은 수련을 비롯해 연꽃, 배롱나무 꽃, 맨드라미 등 수 만여 본에 이른다. 잘 정돈된 인공연못에는 상서초등학교 이내창 교장이 기증한 비단잉어와 금붕어 1,000마리가 청초한 수련 본의 수련 및 연꽃과 어우러져 유유자적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정안천 순환산책로는 지난 4월 초순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조성한 것으로, 미나리 2만본을 비롯 연꽃 2,000본, 수련 8,000본, 창포 2만 5,000본, 붓꽃 5,000본 등 6만여 본이 식재돼 온통 꽃 천지를 이루고 있다.



유구초, 화랑대기 축구대회 ‘우승’

유구초등학교(교장 김영식)가 2008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는 각 시·도를 대표하는 355여팀이 참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축구대회로, 지난 8월 4일부터 10여 일 간 경북 경주시에서 펼쳐졌다. 유구초등학교는 울산학성, 서울중화, 경기성호와의 훌륭한 경기력을 펼치며 가쁜히 예선을 통과, 제주화북과의 준결승에서도 화끈한 공격력을 발휘하며 4-1로 승리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유구초등학교는 최우수 팀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끈 유구초등학교 공부성 감독은 지도자 상을, 6학년 서오영 선수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산성 성안마을 발굴현장 ‘관광상품화’

8월 11일 ~ 11월 16일까지 일반인 무료 발굴체험 가능



공주시는 8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산성 성안마을 발굴조사 현장을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굴체험을 시범 운영기로 했다. 공주시의 이번 결정은 공산성 성안마을 발굴조사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기존의 격리된 발굴현장의 이미지를 벗어나 시

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공간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발굴체험은 백제시대 무덤과 조선시대 건물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험내용은 발굴조사법, 측량과정, 유물세척 및 복원 등으로 전화로 선착순 접수한다.



공주산성시장 살리기에 81억 원 투입

2010년 목표로 집중육성, ‘관광테마시장’ 탈바꿈



충청남도과 공주시는 대백제전이 치러지는 2010년을 목표로 올해부터 3년간 총 8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세계인이 찾고 싶은 전통재래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계획에 따르면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커

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주시와 충청남도는 산성시장 내에 주차장, 야외공연장, 전시·판매장 등의 시설을 갖춘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백제테마거리 조성, 백제향 특화점포 조성, 전자지갑지불시스템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제8회 허수아비축제, 마곡사 가는 길에서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공주시가 시골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농촌 들녘에서 관광객과 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색적인 ‘허수아비축제’를 마련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해 9월말까지 2개월 동안 개최되는 축제는 천년고찰인 마곡사 가는 길(정안면 대산리~내문리) 8km 구간에서 열린다. 허수아비에 사용되는 헌옷이나 철거된 플래카드 등 재료일체는 해당 마을에서 준비해 주고 있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해학과 익살이 넘치는 허수아비를 제작하여 꼬불꼬불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농촌들녘 논두렁과 논 초입 등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설치된 허수아비 앞에서 자유롭게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어 멋진 추억을 안겨줄 것으로 보이며 축제가 열리는 마곡사 가는 길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공주 밤의 본산지로, 알밤과 표고버섯, 토마토 등 무공해 농산물을 현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허수아비축제’는 올해가 여덟 번째로, 9월말에는 설치된 허수아비를 심사해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가질 예정이다.



충청건설안전체험교육장, 공주로 이전

행복도시 내 산업안전공단 충청건설안전체험교육장이 공주로 이전한다. 공주시는 8월 11일, 산업안전공단 대전지역본부와 행복도시내 연기군 남면 소재의 산업안전공단 충청건설안전체험교육장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67-1번지 일대(대전교원연수원 옆)로 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준공과 함께 이전을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구중)는 이전부지인 반포면 봉곡리 일대에 이달부터 총 43억원을 투자, 총 9,917㎡ 부지에 야외 체험교육동과 본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제63회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

공주시에서 읍·면민 화합 체육대회 열려

8·15 광복절을 경축하고 읍·면민의 화합도모를 위해 열린 2008년 공주시 읍·면민 화합 체육대회는 8월 15일, 유구읍을 비롯 우성면, 신평면 등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유구읍에서는 오전 9시부터 공주공업고에서 읍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청년회 주관으로 줄다리기를 비롯 400m계주, 바구니 공 넣기, 2인3각 달리기, 장대뭇고 달리기, 박스쌓기 등의 경기가 펼쳐졌고, 우성면에서는 오전 8시 30분 우성중학교에서 면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체육회 주관으로 배구, 족구, 바구니 공 넣기, 공굴리기, 훌라후프 돌리기, 육상 100m달리기 및 400m계주, 단축마라톤이 열리고, 번외경기로 장기대회, 시조 대회가 개최됐다.



공주시청 김연섭 씨, '만화홍보론' 발간 화제



현직 공무원이 바쁜 공직생활에서 짬짬이 시간을 내 만화를 활용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홍보수단과 기법 등을 소개한 책을 발간한 이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공주시청 정보통신실에 근무하는 김연섭씨로 최근 전남도청 윤창숙 씨와 함께 최근 '홍보만화론'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김연섭 씨가 연구한 '홍보만화 캐릭터개발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에 대해 조형적으로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게 특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제작된 캐릭터가 어떤 내용을 대표하고 있으며,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공통점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묘사했는지에 대해 이 책에서 고찰하고 있다.



명주원, 제2회 충남사회복지대상 단체부문 사회복지봉사부문 수상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 명주원(대표 이원재)이 제2회 충청남도사회복지대상 사회복지봉사 단체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대표 김수진)와 삼성사회봉사단(단장 한용외) 중부협의회(삼성전자 탕정·천안·온양사업장,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토탈)가 공동주최하고 대전일보(사장 신수용)가 후원, 운영하고 있는 충남사회복지대상운영위원회(공동대표 김수진, 김성철)는 제2회 충남사회복지대상 수상자를 7월 31일 최종 결정했다.

사회복지봉사부문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봉사 단체부문에 명주원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대표 이원재), 개인부문에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이점숙(여, 50)씨가 사회복지공로 단체부문에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당진지구협의회(대표 양기림)가 각각 차지했다. 수상자는 9월 10일(수)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제9회 충청남도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하며 시상금은 충남사회복지협의회 대상 운영 규정에 의거 단체·개인 등 각각 300만원씩 수여된다.



이원재 대표

내고장 인사

정문호 14대 공주소방서장 취임



제14대 공주소방서장으로 정문호(46세, 소방정) 전 충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이 취임했다

정 서장은 62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보문고와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공학과 공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소방간부 6기로 1990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대전소방본부 방호, 내무부 예방과, 중앙소방학교 교수·서무계장, 교관단장, 아산소방서장, 충남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장 등 소방행정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여 기획력과 위기관리능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사랑의 빵’ 전달, 마음 훈훈



공주시가 청소년 자원봉사 100배 즐기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월 13일,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통한 봉사활동을 펼쳐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이날 공주시의 54명의 관내 중·고등학생들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천장욱) 식품가공과 제빵 실습실에서 식품가공과 재학생들의 도움으로 빵을 직접 만들어 상왕동에 있는 장애인시설인 소망공동체 등 관내 4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사랑나눔 행사를 펼쳤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빵을 직접 만들고, 만든 빵을 장애우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손도 잡고 노래도 부르는 등 프로그램이 다양해 재미있었다며 더 많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주문했다.

한편, 청소년 자원봉사 가입과 9월 넷째 주 토요일에 있을 100배 즐기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공주시자원봉사센터(☎ 840-2857)로 문의하면 된다.

한마음장학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전달

지난 1월 출범한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가 장학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장학회는 7월 22일,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 42명에게 장학금 3,7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3월에는 우수 장학생, 이·통장자녀, 저소득자녀 135명에게 1억 2,4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이날 이준원 공주시장은 “이번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사명감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발굴해 장학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시청 공무원들 ‘사랑의 헌혈’ 참여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혈액수급이 가장 어려운 여름철을 맞아 사랑의 헌혈 운동에 두 팔을 걷었다. 8월 25일 공주시청 공무원 60여명이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참여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씨를 지폈다.

공주시청 관계자는 “여름철 방학기간과 말라리아 위험성으로 채혈금지지역 등이 확대되면서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직자들이 솔선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헌혈운동에 참여한 전경규씨는 “10여분의 헌혈로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데 기꺼이 동참하게 됐다”면서 “오늘 헌혈이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 많은 공무원들이 직접 헌혈 행사에 참여해 헌혈 공익광고 ‘헌혈을 위한 1초의 찡그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입니다’를 직접 실천하려 했으나, 헌혈 부적격자로 판명돼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주출생 일본인, 선친 유물 328점 기증

아메미아 히로스케씨, “공주서 수집한 것 공주에 돌려줘야”

공주에서 태어나 심상소학교(봉황초등학교 전신)와 공주고보(공주고등학교)를 다녔던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씨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 328점을 기증했다.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76.公州會 이사장)씨는 8월 25일 오전 11시 충청남도 대회의실에서 마제석감, 청동거울, 이조백자, 분청사기 등 유물과 구한말, 일제시대의 각종 기념엽서 등 모두 68종의 개인소장 유물 328점을 기증했다. 이는 민간인이 기증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아메미아 히로스케씨는 “오늘 기증한 유물은 선친인 아메미아 다다마사(雨宮忠正)가 공주에서 살았던 당시 사업을 하면서 취미로 모은 유물들이며, 선친 사망이후 공주에서 수집했던 것이므로, 공주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돼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해방직후 혼란기에 대부분 도난당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오늘 기증된 유물은 아직 전문가의 정밀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고려시대 부장품, 인화문 분청사기 등은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주 금강교를 소재로 한 엽서는 당시의 교량형태 등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극히 드문 자료로 알려졌다. 한편 아메미아 히로스케씨는 현재 공주시에서 살았거나, 심상소학교, 공주중고등학교, 공주농업학교 등 당시 공주소재학교에 다녔던 일본인으로 구성된 ‘공주회(公州會)’ 이사장겸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 ‘공주회’에는 10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15명이 오는 10월 2일 백제문화제 참가를 위해 공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공주시청 간부공무원들

추석맞아 어려운 이웃 위해 발벗고 나서

공주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공주시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2,313가구 및 22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한 국·실·과장, 평생마을 분담직원이 위문에 나섰다.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방문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모아진 이웃돕기 성금 중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 5,000만 원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공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희망물품을 파악해 현물로 지급하는 등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위문을 실시했다.





2008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개막

8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연미산자연미술공원에서



2008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한국 자연미술의 발생지이며 국제 자연미술의 메카인 공주 연미산미술공원에서 8월 19일 개막되었다. 세계 자연미술운동의 향방과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이번 비엔날레는 살아 숨쉬는

자연과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재능 있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국 25명, 외국 16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된 초대작가들은 자연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을 설치해 숲속을 아트갤러리로 만들어 관람객들은 산길을 따라 걸으며 곳곳에 설치된 자연미술을 감상하는 것이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의 묘미라 할 수 있다.

제3회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8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연미산자연미술공원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참가하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완성된 작품과 함께 일부 작가들의 작품 제작과정을 볼 수 있으며, 참여 작가 프레젠테이션 및 세계 각국의 자연미술 프로젝트 소개, 국제자연미술 학술세미나 등의 연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2008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열리는 동안 자연미술 시민 무료강좌, 연미산자연미술공원 체험학습장 등 참여마당이 준비되어 있으며, 8월 27일에는 자연미술운동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병행한 자연미술 심포지움이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허강(한국) 작 자연으로부터-생성



동아일보 2008 백제마라톤대회

10월 5일 백제문화제 기간 중

'2008 백제마라톤대회'가 오는 10월 5일찬란한 백제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백제의 왕도 공주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백제의 정취가 배어 있는 풀코스는 금강을 따라 달리는 무공해 청정 코스로 백제큰길, 무령왕릉, 공산성에서 700년 백제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 마라톤 동호인들을 자극한다. 올해 대회도 작년과 동일하게 풀코스, 하프코스, 10km단축코스, 5km건강달리기 등 4개부문에서 펼쳐지며, 참가신청은 인터넷(<http://marathon.donga.com>)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제9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서명희 씨, 한수산 씨 장원



명창부 장원 서명희 씨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주대학교, 공주문화원 등에서 개최된 제9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에서 서울 송파구 서명희(여, 44세)씨가 명창부문에서 장원을 차지해 대통령상 수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또, 전남 영광군 한수산(남, 19세)씨가 명고부문에서 장원을 차지해 국무총리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전국 각지에서 120여명의 소리꾼들이 모인 이번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에는 참여자들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며 판소리와 고법만으로 특화시킨 경연대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명창부 최우수상에는 전북 남원시 소민영(여, 28세)씨가 차지해 문화체육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을, 우수상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복순(여, 43세)씨가 차지해 충청남도지사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명고부 최우수상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고정훈(남, 26세)씨가 차지해 충청남도지사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 우수상에는 전남 해남군 박준호(남, 23세)씨가 차지해 한국문화예술회원위원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제5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극단 맥(부산)의 '개똥할매'가 영예의 대상 차지

(사)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오태근)가 주관하는 제5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가 8월 29일 공주 고마나루 야외무대에서 개막됐다.

대상을 수상, 문화체육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천만원을 받은 극단 맥의 '개똥할매'는 최우수 연기상(심미란)과 연출상(이정남)까지 차지해 이번 연극제 중 가장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극단 '맥'의 이정남 씨는 수상 소감에서 "앞으로도 토속적이고 향토성 짙은 작품들을 연출해내겠다"며 "전통을 재창조하려는 연극배우들이 고마나루향토연극제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극단 맥의 이정남 씨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심미란 씨



한국차문화협회, '문주왕천도헌다레' 실시

공주지회, 사무실개소식 갖고 이수증 전달



공주지회 회원들이 생활차를 시연하고 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충남지부 및 공주지회(충남지부장 임영수, (공주지회장 김구연)에서는 8월 18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구 박물관)에서 지역 단체장 및 (사)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 전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제 문주왕 웅진 천도 헌다레'를 실시하고, 사무실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지난 7월 28일부터 전통차 예절교육을 받은 10여명의 공주지회 회원들이 생활차를 시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08년 하절기 전통차문화 예절교육을 이수한 22명의 공주지회 회원들에게 이수증이 전달됐다.

백제 문주왕의 공주(웅진) 천도를 기리기 위한 '백제 문주왕 웅진 천도 헌다레'에는 윤여현 향토문화연구회장(향공양), 정재욱 공주문화원장(등공양), 변평섭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꽃공양), 황우성 충남도의원(과일공양), 최문환 충남역사박물관장(쌀공양), 민경해 차문화협회서울지부장(차공양) 등이 헌다례자로 참여했다. 이어 한정혜씨가 전통무용 살풀이 춤이 펼쳐졌다.



5도2촌 일환,

제1회 '동해동 고랭지 산수박축제' 열려

8월 16일, 해발 400m에 위치한 공주시 유구읍 동해동 마을 일원에서 '제1회 동해동 산수박 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공주시(시장 이준원)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5도2촌'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하는 마을축제이다. 정감록 등에 명당자리로 소개된 산촌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 처음 선보인 이날 축제에는 이곳 출신의 출향인사들과 각 기관단체장, 공무원, 농협관계자, 도시민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시민들은 무등산 수박보다 2~3도 정도 당도가 높은 동해동 산수박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청정지역인 이곳 고랭지에서 수확한 복숭아, 감자, 무, 옥수수 등도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 다시 한 번 그 인기를 증명했다.





공주 벨엘정신요양원, '아킨따라' 공연

인도어로 '진실을 찾아 떠나는 아이'라는 의미의 '아킨따라' 공연이 8월 20일 오후 2시 공주시 봉정동 공주벨엘정신요양원에서 펼쳐졌다. '열린 공연 따뜻한 만남'을 주제로 펼쳐지는 '아킨따라' 공연은 춤과 노래, 마임 등이 동화 같은 이야기와 함께하는 복합극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 등 대상자에게 진실을 찾아 세상을 여행하는 아킨따라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지혜를 재미있고도 감동적이다.

떠돌이 소년 아킨따라가 여행과 방랑에서 겪는 8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인간의 삶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당초 모노드라마였으나, 찾아가는 공연을 위해 두 명의 배우로 재구성돼 장애인들에게 좋은 반응과 평가를 받았다.

아킨따라 역에는 극단 '크레이지 버드' 씨어터 대표이자,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외래강사인 이정훈씨가, 극단 '더미씨어터' 단원인 류왕주씨가 왕 역을 맡고 있다.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문화활동 및 문화향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 추진단(단장 박정자)은 장애인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시켜 우리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확보하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제2회 공주 신상옥청년영화제 성공적 개최

461편 출품, 13개 작품 수상



채민기 감독의 '좋은 밤 되세요'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가운데 제2회 공주 천마 신상옥청년영화제가 5일간의 일정을 마감했다.

공주 천마 신상옥청년영화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정인엽)는 8월 9일 오후 공주 금강둔치공원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13개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채민기 감독의 '좋은 밤 되세요'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대상을 수상하면서 대미를 장식, 채민기 감독이 올해 '제2의 신상옥 감독'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36편의 본선 진출 작품들은 신상옥 감독의 영화에 대한 열정인 '청년 정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 영화인들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공주 신상옥 청년영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작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상금과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의 젊은 영화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준비된 천재 영화인들의 발굴에 앞장서 한국 영화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공주문화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실시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은 문화유적 답사를 통하여 공주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유적에 대한 애호의식을 일깨워주고 또한 실제적인 지식을 함양,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유적답사를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며 우리 조상의 얼과 정신을 배우고자 2008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8월 23일 1차 공주시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유적답사는 신청자 80명 중 80명이 참여, 높은 인지도로 오전 8시에 출발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수원화성의 문화유적을 찾았다.

공주문화원에서는 8월 23일 시민 문화유적답사를 시작으로 8월 24일, 30일, 31일, 9월 6일 등 5차례에 걸쳐 공주 시민들을 위한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최대 규모의 대표적 국립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국내의 역사·고고학·미술사·민속 등에 관한 자료를 둘러보며 한국 역사문화의 세계를 심취하였고, 한국 문화발전의 큰 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답사의 마지막 코스인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이어진 성곽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 역사문화에 심취하였다.



화성행궁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답사객



공주문화원, 초대기획전 ‘비상展’ 개최

8월 1일 ~ 8월 7일까지 공주문화원 전시실에서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에서는 한여름의 난초향기와 더불어 미술작품의 미(美)를 음미하고자 8월 1일 (금) ~ 8월 7일 (목)까지 7일간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에서 공주문화원 초대 기획전(비상전)을 개최했다.

비상전은 공주지역 출신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교시절의 인연으로 계속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미술교사 및 작가들로 현재 정기적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현대회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를 표현해 내고 있는 회원들로 지난 97년 제1회 비상전을 시작으로 2008년 제12회 비상전을 갖는 이번 기획전은 강용석, 권오석, 오수홍 외 6명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국화 및 서양화 20여 점을 정성껏 준비하였다.



예인촌 마흔다섯번째 정기공연

피아니스트 강나영의 열린콘서트 「하늘빛 그리움」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이 주최하고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이 주관하는 마흔다섯번째 정기공연이 한가위를 앞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말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가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9월 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강나영의 열린콘서트 “하늘빛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뉴던(New Dawn) 현대음악앙상블 초청, 피아니스트 강나영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로 현대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쳐졌으며 강나영 씨 외 6명이 ‘하늘빛 그리움’, ‘캐논변주곡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비롯하여 6곡의 연주곡을 선보였다.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와서



임 주 현(공주중동초등학교 5학년)

수업이 있는 토요일인데, 나는 공주문화원에서 운영하는 ‘2008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에 엄마와 함께 참여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 오늘 내가 답사할 곳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수원 화성행궁이고 한 대의 버스에 25명 정도가 함께 갔다.

평상시 매일 바쁘기만 하신 엄마가 수원화성에 나와 함께 꼭 가보고 싶었는데 공주문화원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신청했고 오늘 참여하게 됐다고 하셨다. 서울에서 공주로 전학하기 전이니까 3학년 때 나는 엄마와 국립중앙박물관을 가 본 적이 있었다. 너무 넓어 하루에 다 볼 수 없어 다음에 또 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가게 됐다. 그리고 수원화성은 조선시대 정조임금이 지었다고만 알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먼저 도착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전에 와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낯설지 않았지만 진짜 넓고 컸다. 박물관 입구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상설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상설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소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안내기와 음성안내기 대여점이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필요할 거라며 대여해 주셨는데 영상안내기와 음성안내기가 똑똑하게 잘 설명해주어서 편리했다.

첫 번째 간 곳은 고고관인데 시대별로 특징적인 유물을 전시하여 우리 문화의 기원과 전

개과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원삼국,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통일신라, 발해까지 선사와 고대 10개의 전시실에서 4,500여점의 유물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공주에 있는 석장리박물관에서 보았던 구석기 유



평상시 매일 바쁘기만 하신 엄마가 공주문화원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신청했다.



물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 같아 반가웠다.

나는 공주에 있는 석장리박물관에 여러번 가 본 적이 있다. 또,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되어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인 금제왕관과 뒤꽂이, 귀걸이, 관꾸미개(왕비) 등 백제 유물을 복제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해 놓았는데 이번 제54회 백제문화제 포스터에 나온 환두대도 그림이 새겨진 칼도 볼 수 있었다. 멋졌다. 나도 저런 칼을 갖고 싶은데...



수원 화성은 41개 시설물이 있으며 1997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함께 답사를 간 이모가 중요한 것이라며 알려주셨는데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지식이 발견된 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주 무령왕릉뿐이라고 하셨다. 내가 사는 공주에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웬지 내가 왕이 된 같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 썼던 물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잠깐 우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우리들은 빨리빨리 움직여 소장품문화재를 기증한 기증관과 미술관 등을 관람하고 점심을 먹으러 이태원거리로 나왔다.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팠다. 그래서 그런지 점심 메뉴로 나온 비빔밥은 꿀맛이었다.

그리고 다시 출발, 화성행궁에 도착하여 2시부터 시작되는 토요일상설공연을 나무 그늘에 앉아 관람했다. 그런데 무예24기 공연을 하지 않아 속상했다. 무예24기는 정조대왕 시대의 민족전통 무예로 조선시대의 무예와 중국과 일본의 우수한 무예로 만든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24가지 실전무예를 공연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늘은 공연을 하지 않아 볼 수 없어 정말정말 아쉬웠다. 다음에는 미리 전화해서 무예24기 공연 시간에 맞춰 와서 꼭 보아야지...

이어 화성행궁에 대해 문화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화성행궁을 관람했다. 수원 화성은 41개 시설물이 있으며 1997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지금처럼 기계가 있던 것이 아닌데 수원 화성 어떻게 쌓았을까 궁금했는데 정약용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데 사용하는 거중기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문화원소식

화성행궁은 1789년(정조 13년)에 건립하여 수원부 관아와 행궁으로 사용되다가 1794년(정조18)~1796년(정조20)에 걸쳐 화성행궁으로 완성되었다고 한다. 화성행궁은 정조대왕이 뒤주 속에 갇혀 죽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지금은 윤건릉)으로 옮기고 이곳을 다녀가기 위해 지었으며 13번이나 다녀갔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 행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웠으며 정조대왕께서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을 열었던 궁이기도 하며, 낙남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설물들은 일제시대 때 사라져 버렸지만 시민들에 의해 화성행궁 1단계 복원이 완료되어 2003년 10월부터 일반에게 공개됐다고 한다. 으리으리한 화성행궁을 관람하고 난 나는 녹초가 됐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내 머릿속에 자꾸만 정조대왕이 생각났다. 나는 엄마한테 정조대왕처럼 효자인가? 엄마 말씀이 “우리 주현이는 어떨 땐 어른처럼 말도 잘 듣고 엄마를 잘 위하고 착한데 어떨 땐 청개구리처럼 말도 안 듣고 고집만 피우고 엄마한테 짜증도 부리더라”라고 하셨다. 그러고 보니 히히~ 나는 효자는 아닌 것 같다.

날씨는 덥고 많이 걸어서 다리도 아팠지만 오늘 문화유적답사를 하고 나니 내가 사는 공주가 백제문화의 유적지와 유물이 많은 중요한 고장으로 아끼고 사랑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또 정조대왕을 본받아 부모님에게 효자인 주현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내가 사는 공주가 백제문화의 유적지와 유물이 많은 중요한 고장으로 아끼고 사랑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와서



서경희

2년 전인가 3년 전쯤 서울 中央博物館이 개관되기 직전에 전 公州 國立博物館 자원봉사자들과 중앙 박물관을 견학했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으로 세밀히 관찰하기란 무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로 좀 더 자세히 보고 올 것이라는 각오로 이번 답사에 참여하게 되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돌아오는 길에 수원 화성을 돌아보고 오는 코스여서 제겐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문화유산을 돌아본다는 의미는 일반 관광과는 달리 항상 가슴 찡한 울림으로 다가오니깐요.

박물관에 도착하니 2,3년 전에 왔던 기억이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안내자의 동선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말씀대로 저는 우선 1층 유물을 관찰했습니다.

구석기 후기의 ‘슴베찌르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며 ‘작은돌날뚝돌’은 北中國 바이칼 호 주변 시베리아 베링 해 등을 포함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석기 제작 기법이나 형태까지도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사람들의 이동이나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다음은 신석기시대의 유물로 빗살무늬는 공주 박물관에서도 접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 바가 있지만 ‘덧무늬’는 잘 몰라 자세히 설명을 읽어 보았더니 기원전 4천~6천년 전 겹면에 진흙 띠를 덧붙여 무늬효과를 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리(Bowl:대접같이 둥근 그릇)는 빗살무늬인데 나중에 점차 민무늬(무늬가 없음)로 바뀌었다는군요. 관꾸미개, 금관, 말탄 사람 토기, 용머리 등 많이 익숙한 유물들을 관람하였습니다. 신석기시대에는 또 흑요석이 많이 보이는데요, 흑요석은 주로 화산지역에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규슈 지방이지요. 청동기시대에는 ‘반달칼’이 유명하지요. 농경문화 특히 벼를 수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두 개 있는 반달모양의 칼은 어쩌면 그렇게

지금보아도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또 그 두 개의 구멍은 왜 달려 있는지 우리들을 상상의 나라를 펴게 하는

박물관의 유물들은 우리들을 상상의 나라를 펴게 한다.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농경문청동기’의 모습도 매우 익숙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절구처럼 보이는 것에 수확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지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는 주로 기증문화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의 유물이었는데 귀족들이 쓰던 청자 백자보다 서민들이 쓰던 토기의 질박함이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제가 서민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군요. 중국 산시성 첸헨에서 발굴되었다는 唐대의 ‘인물화’도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당대는 중국회화의 성숙기로 특히 인물화가 발전하였으며 섬서성 서안에서 발굴 되었다고 합니다. 공주 국립박물관에 있는 사신도 그림 같아서 자세히 보았더니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는 관리들을 묘사한 세 명의 외국 사신의 각 나라의 고유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물의 표현에 있어서는 실존하는 인물과 닮게 그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층은 중앙아시아 유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3세기의 간다라미술 또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로 대표되는 인도의 종교는 모든 생명체가 윤회하며 한 생의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믿음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 눈길을 끈 것은 “꽃을 든 여인”이란 일본의 작품인데 그것은 일본의 종교적이고 고전적인 테마를 유럽의 모더니즘과 그리스 조각양식을 응용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얼굴은 명상을 하듯한 매우 평화로운 표정으로 성스러움을 자아내는 동시에 몸의 곡선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어찌면 그렇게도 섬세한지 잊혀지지 않을 작품이었습니다. 미시사(微視史)의 개념을 일본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깨달았던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행궁은 왕이 지방으로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물거나 전란, 휴양, 능원 참배 등으로 지방에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 거처하는 곳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위급함을 피하고 국사를 계속하기 위해 마련된 행궁으로 강화행궁, 의주행궁, 남한산성 내의 광주부행궁 등이 있고, 둘째, 온양행궁은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행궁으로 조선 세종 이래 역대 왕이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지방의 능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원에 참배할 때 머물던 행궁이 바로 화성행궁입니다. 정조(22대)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으로 이장하면서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축조했으며 정조 14년에서 19년(1790~1795)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중요 경유지에 과천행궁, 안양행궁, 사근참행궁, 시흥행궁, 안산행궁, 화성행궁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성행궁은 규모나 기능면에서 단연 으뜸으로 뽑히는 대표적인 행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성행궁은 정조가 현릉원에 전배하기 위하여 행행(行幸) 때에 머물던 임시 처소로서, 평상시에는 부사가 집무하는 부아(府衙)로도 활용하였습니다. 정조는 정조 13년 10월에 이루어진 현릉원 천봉부터 정조 24년 1월까지 12년간 13차례에 걸친 원행을 정기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때마다 정조는 화성행궁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가 승하한 뒤 순조 1년 행궁 곁에 “화령전”을 건립하여 정조의 진영을 봉안하였는데, 그 뒤 순조, 헌종, 고종 등 역대 왕들이 화성행궁을 찾아 이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정조 때 최대의 역사였던 화성 성역은 1차적으로 화산의 현릉원 호위와 함께 팔달산 정상 바로 아래 성내 중심부에 건립된 행궁을 둘러싸면서 이를 수호하는 것을 중요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군영 건물은 ‘장용영(壯勇令)’이 설립된 초기였던 만큼, 정조 17년 신읍치에 장용영이 설치되고, 정조 19년과 정조 22년 군영의 일대 개편에 따라 그 건물도 늘어나 지휘자와 병력 수에 따라 그 수용을 위한 신·증축을 거듭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침 ‘장용영 수위식’이 거행되었는데 운 좋게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용영 수위식은 일요일에만 거행된다고 하였습니다. 힘찬 북소리와 함께 식이 거행되었는데 화려한 취타대의 음악을 앞세우고 임금님이 병조판서와 내관의 안내로 성문을 나와서 각종 명령을 하달하고, 부하들을 치하하고 백성들을 살펴보고 성문을 통하여 입궐을 하는 장대한 행사였습니다. 장용영의 군사들이 임금님의 치하에 용기백배하여 도열해 있는 모습을 보니 조선시대의 백성을 사랑하는 통치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조대왕께서는 특히 효행이 지극하여 화성의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밖에 ‘乙卯年 園行日記’를 재현하여 2010년에 완공한다는 소식도 안내자께서는 친절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박물관에서의 미진함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성을 돌아보지 못한 서운함과 아직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다음에 한, 두 번쯤은 더 올 것을 기약 하면서 답사를 마쳤습니다. 문화원의 답사 프로그램을 추진하시는 원장님을 비롯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 램

「공주문화」지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의거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화지는 공주가 고향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어오니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성 명	연령	자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 주 문 화 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www.culturegj.or.kr | 네이버검색:공주문화원